

새롭게 만나는
인천비전 슬로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찬 미래로 인도하는 길잡이,
북극성 모티브
#인천과 대한민국을
환히 비추다
#꿈을 상징하는 별

굿모닝
인천



빈센트 반 고흐(1853~1890), 별이 빛나는 밤, 1889년, 유화, 73.7×92.1cm, 뉴욕 현대미술관

고흐의 밤하늘에서 칸트를 만나다

개인적으로 미술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작가의 표현 양식에 묘하게 끌리기도 하고, 그 이상의 어떤 경이로움까지 느끼곤 하거든요. 하늘을 향해 상승하는 사이프러스 나무와 교회 첨탑이, 질푸른 밤하늘에 휘몰아도는 크고 작은 별들이 그래요. 나아가 이 별들은 명멸해 간 위대한 사상가와 예술가의 현현인 듯싶어 이런저런 상상을 더하게 하죠.

“늘 새롭고 더한 놀라움과 경건함을 주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내 위에 반짝이는 별을 보여주는 하늘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지켜주는 마음속 도덕률이다.”
임마누엘 칸트(1724~1804)의 모비명에 새겨져 있는 글귀입니다. 언제부턴가 고흐의 밤하늘과 칸트의 글귀가 하나로 묶이기 시작했어요. 밤하늘에 필적할 도덕법칙이라니... 칸트는 우리의 어떤 선택과 행동이 좋음이냐 결과를 미리 상정하지 않고 그것이 오직 옳음과 동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옳음은 하나의 도덕법칙이 되어야 하고, 그 행함에는 선의지가 수반되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상대성이나 사회생활의 융통성이니 하는 말들로 자신의 판단과 행함을 합리화하기에 바쁜 건 아닐까요.

깊어가는 계절 따라 낮의 길이도 조금씩 줄어들고 기온도 점점 떨어지고 있네요. 해가 지면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부산스럽게 총총거립니다. 도시의 고층 건물과 불빛 사이로 비집고 나온 별빛이 반갑네요. 때론 이렇게라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삶을 되돌아보고 누군가를 만나기도 합니다.



표지사진
인천 드림파크 야생화단지공원 역새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2년 11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유준호(공보관)

편집장 김진국

편집위원 정경숙·최은정

사진 김성환·류창현·유승현·전재천

디자인·제작 하나로애드컴

발간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시 공보관실 032-440-8306



11월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신포동은 80년 전부터 대중음악의 거리였습니다. 광복 이후 미군을 주축으로 한 UN군이 주둔하면서 그들을 상대로 한 ‘음악 클럽’이 성업했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떠난 뒤 음악 클럽은 외향 선원들을 상대로 하는 ‘씨맨스 클럽’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포동엔 하우스 콘서트를 열며 ‘선산 지키듯’ 대중음악의 명맥을 이어오는 음악 클럽들이 있습니다. <굿모닝인천> 11월호는 인천 문화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들의 골목을 걸었습니다. 만추의 계절에 비친 동검도와 교동도는 어떤 빛깔일까.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천도복숭아 빛깔’은 아닐까요. 두 섬의 가을 색은 스케치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3남매를 둔 ‘다둥이 엄마’이면서도 15년간 초등학교 등교 시간 교통 봉사를 해온 이옥금 씨도 11월호의 주인공입니다. <굿모닝인천> 11월호와 함께 온 세상에 충만한 깊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 취재와 촬영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04 인천 미소 가을의 정취 가득한 〈굿모닝인천〉外	41 이미지 뉴스 인천 내항의 미래
05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인천대공원	42 시정 뉴스 웅진군, 물고기 아파트 설치 外
06 골목길 TMI ⑤ 신포동 음악 클럽 거리	46 의회 뉴스 전국 최초 완성형 비전 선포 外
12 스케치에 비친 인천 ② 동검도	48 인포 박스 납세자보호관과 마을세무사가 함께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 外
18 새로운 여행 교동도 화개산	52 문화 캘린더 책자로 보는 추억, 기록의 소환 外
22 화보 영흥도 꾸지나무정원	54 컬러링 인천 소래
26 구도 인천 SSG 랜더스 KBO리그 정규시즌 우승	56 내가 보는 세상 인천시민의 시선
30 시민 인터뷰 이옥금 인천주원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	57 편집후기 시간의 성숙함 外
32 인천 클로즈업 ‘배다리 아트스테이1930’에서 떠난 ‘여인숙 여행’	58 인천의 아침 인천 행정구역 개편史
34 인천 문화재 이야기 ③ 천연기념물 508호 ‘스트로마톨라이트’	59 한 컷 인천 산사의 가을
36 문화 줄인 가을하늘에 피진 차의 향기 外	
38 아무도 울지 않는 밤 ⑩ 밤의 시작과 끝	

읽어주는 〈굿모닝인천〉
음성 지원 이북 바로가기



인천미소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 을 입력하세요.

-  www.facebook.com/incheon.gov
-  blog.naver.com/incheontogi
-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  twitter.com/incheon_gov
-  story.kakao.com/ch/incheoncity
-  '인천시 미디어'
-  www.instagram.com/incheon_gov
-  www.weibo.com/incheon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가을의 정취 가득한 〈굿모닝인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나 싶었는데 어떤 날은 초겨울처럼 바람이 매섭습니다. 가을이 너무 빨리 가버릴까 봐 아쉬운 마음에 〈굿모닝인천〉을 들었는데, 단풍 곱게 든 표지가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배다리 현책방 거리가 소개된 기사를 읽으며 또 한 번 독서의 계절임을 실감했구요. 가을의 정취를 일깨워줘서 감사합니다.

— 조영희 연수구 센트럴로

성실하고 어김없는 시민의 잡지

변화무쌍한 세상과 시절이라 변하지 않는 것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30년째 동네의 크고 작은 일에 앞장서는 철물점 사장님이며, 제철 채소와 저녁 떨어가 있는 동네 시장이며, 그 한결같은데 감사드리곤 합니다. 월초가 되면 우체통에 곱게 꽃힌 〈굿모닝인천〉도 성실하게 어김없이 좋은 소식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 박성화 계양구 선주로

반갑습니다, 가수 백영규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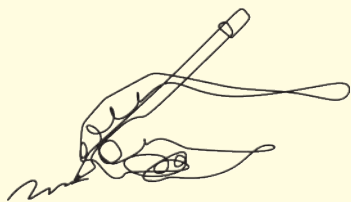
세대마다 그 시절 유명한 사람들이 다른데요, 〈굿모닝인천〉에 소개된 가수 백영규 씨를 보고 너무 반가워 저도 모르게 ‘슬픈 계절에 만나요’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누구냐고 묻더군요. 20대 딸은 모를 수 있겠더라고요. 덕분에 추억 여행을 제대로 했습니다. 백영규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도 들어봐야겠습니다.

— 박상희 강화군 강화읍

매달 만나는 삶의 지혜, 인생의 철학

매달 〈굿모닝인천〉을 읽을 때마다 좋은 문장을 발견하곤 합니다. 시민 인터뷰 기사에서 “나이가 들면 판단하고 행동하는 속도도 조금 느려집니다”라는 구절에서 ‘맞아, 어르신들의 속도를 존중해야 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옴니버스 소설에서 ‘지독하게 못하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 유일한 것’이라는 말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 이민진 남동구 논고개로



호수에 비친 단풍 잎새들

글 정현주(남동구 남동대로)

인천대공원



주말이 되면 가장 큰 고민거리는 ‘삼시 세끼 뭐 먹지?’와 ‘뭐 하고 놀까?’다. 사춘기 첫째 아이는 방문을 닫고 들어가면 주말 내내 코빼기도 안 보이려고 하지만 아직 초등학교인 둘째 아이는 끊임없이 요구 사항을 늘어놓는다. “우리 반 친구는 지난주에 OO랜드에 가서 정말 재미있었다는데 우리는 언제 가?” “피아노 학원 같이 다니는 언니는 이번에 가족끼리 호텔 가서 자고 온대.” “이번 주엔 일기에 뭐라고 써? 밥 먹고 TV 보고 게임했다고 쓰라는 거야? 지난주에 이미 썼다고!”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둘째 아이의 말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보니 주말에 동네 놀이터와 마트 가는 게 고작이니 얼마나 심심했을까.

남들은 주말에 뭐 하나 싶어 폭풍 검색을 했다. 어디 멀리 1박으로 다녀오기는 부담스럽고, 중학생과 초등학교의 눈높이를 고루 만족시킬 데는 없을지 여기저기 블로그를 바빠 오갔다. 그런데 불쑥 남편이 해법을 내놓았다. “인천대공원에 가자. 가을 나들이 하면 인천대공원이지!” 생각해 보니 인천대공원을 언제 가봤던가 싶을 만큼 기억에서 잊힌 지 오래였다. 인천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우리 부부에게

인천대공원은 어릴 적 소풍 장소이자 가족 나들이 장소였는데 말이다.

입 나온 아들과 신난 딸을 끌고 인천대공원에 갔다. 차 막히는 길 싫어하는 남편 덕분에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천천히 걸으니 운동도 되고 좋았다. 아들은 초입에서부터 자전거를 빌려달라더니 한 바퀴 돌고 온다며 행하니 사라지고, 딸은 내 손을 어린이동물원으로 이끌었다. 앵무새, 사막여우, 원숭이 등 여러 동물을 만났다. 그날막 텐트에 간식을 챙겨와 풀밭에서 쉬는 다른 가족을 보니 너무 준비 없이 왔나 싶어 조금 후회가 되기도 했다. 다음엔 온종일 놀 수 있게 준비를 단단히 하리라.

모처럼 풀과 나무 가득한 길을 걸으며 초록 내음을 흠뻑 마셨다. 호수에 도착했다. 잔잔한 호수에 비친 울긋불긋한 풍경에 가을이 왔음을 실감했다. 더욱이 하늘은 티 한 점 없이 청명하고 햇살도 포근해 가을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중간중간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으며 가족의 추억을 차곡차곡 쌓았다. 단풍이 지기 전에 또 한 번 오기로 다짐하며 보람찬 주말을 마무리했다.



인천 최초 재즈 클럽, 버텨라인의 허정선 대표

LP광처럼 느리게 돌아가는 동네, 신포동

골목을 걷는 것은 동시대를 기억하는 가장 다정한 방식이다. 그 안에 우리네 삶의 오늘과 내일, 어제가 있다. ‘골목길 TMI’는 골목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다. 이번 호에선 수천 장의 LP를 보유한 음악 카페 주인장과 그곳을 특별히 좋아하는 오래된 단골들을 만났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유승현 포토 디렉터

신포동 음악 클럽의 역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 이후 송의동에 자리한 다국적군은 고향의 음악을 듣기 위해 신포동을 찾았고 골목마다 재즈, 블루스, 컨트리음악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1세대 밴드 ‘키보이스’를 결성한 김홍탁, 한국 최초 록 그룹 ‘애드훅’의 김대환 같은 쟁쟁한 뮤지션이 이곳에서 탄생했다. 1980년대까지 30여 곳에서 ‘디지털 음원’이 아닌 ‘진짜 음악’이 흘러나왔다. 시절은 변했지만 신포동은 그 시절 LP판을 들으며 청년기를 보낸 ‘올드 보이’와 세대를 넘어 음악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숨겨 놓은 아지트다. ‘흐르는 물(since 1989)’, ‘버텨라인(since 1983)’, ‘탄트라(since 1979)’... 오래된 음악 카페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명곡이 마음을 도닥인다.

인천 최초·대한민국 3대 재즈 클럽, 버텨라인

세월을 머금은 나무 계단을 밟고 2층에 올라 두꺼운 나무 문을 열자 음악이 확 안겨든다. 깊은 울림이 귀를 넘어 가슴으로 파고든다. ‘좋다...’ 과연 대한민국 3대 재즈 클럽이라는 명성에 걸맞다.

버텨라인은 1983년에 문을 연 인천 최초의 재즈 클럽이다. 1900년대 초에 지어진 일본식 목조 건축과 높은 천장, 단아한 무대에서 역사와 기품이 느껴진다. 허정선(56) 대표는 “라이브에 최적화된 공간이에요. 높은 천장과 흡벽이 소리를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그 울림이 고스란히 관객에게 전달되니 뮤지션과 관객이 혼연일체가 되는 무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1세대 재즈 피아니스트 신관웅을 시작으로 그간 김광민, 웅산, 윈터플레이 등 실력 있는 뮤지션이 무대에 올랐다. 해외에도 알려져 프랑스의 ‘국민 베이시스트’ 앙리 텍시에 같은 거물 연주자가 연락을 해와 공연이 성사되기도 했다.

라이브 공연이 열리는 토요일 저녁, 사람들이 하나둘 포근한 소파에 몸을 파묻고 재즈 선율에 빠져든다. 피아니스트의 손끝에서 날아오른 음표가 바닥을 가로질러 다가와 보드라운 손을 내민다. “음악은 흘러지는 게 아니라 어느 시간 속으로 나를 데리고 가잖아요. 생생하고 자연스럽게. 그게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다음 주인이 누가 되든 50년, 100년 후에도 이곳에서 재즈가 흘러나오고 있으면 좋겠어요.”

📍 인천시 중구 신포로23번길 23 | 032-766-8211



LP판이 파문을 새기면 깊은 울림이 귀를 넘어 가슴으로 파고든다.



송석철(58) 재즈 피아니스트

연주자에게는 태산 같은 시간을 쌓아야 눈곱만큼의 재미가 허락된다. 그렇게 숙련한 음악으로 관객과 교감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다. 완전한 교감. 그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무대에서 싱긋싱긋 웃게 된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미소 짓는다. 버텨라인은 믿고 공연할 수 있는 곳이다. 뮤지션은 마음껏 잘난 척할 수 있고, 관객은 재즈의 숨결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이런 귀한 공간과 에너지는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다. 버텨라인이 100년을 가야 하는 이유, 100년을 가리라 믿는 이유다.





1979년부터 한자리를 지킨 탄트라(위)
'백판 키즈' 김국용 대표. 20대 때 음악 DJ를 할 정도로 음악을 좋아했다.(아래)

세계적인 명곡 가득한 음악 카페, **탄트라**

붉은 벽돌벽에 빨간 천막을 머리에 얹은 오래된 건물이 가을밤을 밝힌다. 탄트라는 신포동 음악 카페의 만형답게 1979년부터 한자리를 지켰다.

지금 주인장 김국용(60) 대표는 2대 사장이다. 1995년, 그의 나이 서른세 살에 탄트라를 맡았다.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1980년부터 자주 왔는데, ‘탄트라 사장’이 제 꿈이었어요.”

학생 시절부터 이글스, 스모키, 딥 퍼플 등의 록 그룹을 좋아해 그들의 음악을 끼고 살았다. 외국 팝 가수들의 ‘백판’을 사 모았고, 20대 때는 음악다방 DJ를 할 정도로 음악을 좋아했다. 덕분에 이곳엔 팝, 재즈 블루스, 록 등 다양한 장르의 명곡 LP판이 가득하다.

“많은 분이 ‘음악으로 힘을 얻는다’고 하세요. 제가 마음을 고치는 의사가 된 것 같아요. 마음이 무거운 날, 신포동의 빨간 지붕을 찾아 들어와 보세요.” 그의 말처럼 음악은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울린다. 부드럽게 용서하고, 감동시킨다. 음악이 있으면 발걸음이 리듬이 된다.

☎ 인천시 중구 신포로27번길 23 | 032-762-8786



노승환(45) MBN 기자

탄트라의 음악은 어딘지 뜨겁거나 따뜻하다. 올 때마다 ‘나는 아직 온전하다’ 생각한다. 세상 가차 없고, 사람은 내 맘 같지 않다. 그렇게 휘청휘청 와 앉으면 ‘내 아직 멀쩡하구나’ 한다. 그 감지덕지가 육감 중에 따뜻한 게다. 뜨거움은 음악 때문이다. 거대한 스피커는 JBL이요, LP로 흐르는 음악은 아날로그 전성기의 일절 상투적이지 않은 선곡이다. 볼륨은 좀 크다. 음색이 차가울 리 없고, 이어폰 따위 비할 바 아니다.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다지만 누구에게나 작은 대피소 정도는 필요하다. 탄트라의 붉은 지붕 아래 작은 테이블 하나면 나에겐 충분하다.



김종하(56) 문화예술 감독

흐르는 물에는 신포동의 가장 빛나던 시절이 알알이 살아 있다. 이름처럼, 늘 음악이 흘렀고, 턴테이블 위를 천천히 돌아가는 LP의 선율은 풍부하고 따뜻했다.

1980~1990년대 인천에서 음악이나 문학을 하는 멋쟁이들이 단골이었다. 좋은 음악이 있었고, 섭이 형(안원섭 대표)은 늘 인천 문화예술인을 환대해 줬다. 술 한잔에 예술과 삶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며 청춘을 함께했다. 지금도 많은 예술가가 이곳을 찾는다. 그는 언제나 우리에게 포근한 나무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다.

무수한 음악과 역사가 흐르는, **흐르는 물**

정희성의 시 ‘저문 강에 삼을 씻고’의 첫 구절인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를 줄여 간판을 단 음악 클럽 ‘흐르는 물’은 포크송이 흘러나오는 감성적인 공간이다. 감미로운 선율이 흐르는 공간엔, 시인이자 뮤지션 안원섭(62) 대표가 평생 모은 LP판 5,000여 장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1989년 클럽 문을 열었다. “예술을 사랑하는 인천 지역 청년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화가, 작가, 음악가, 시인, 기자 등 다양한 예술가와 청춘을 함께했죠.” 시인에게는 커피값 대신 시집을, 화가에게는 술값 대신 그림을 받기도 했다. 그 시절부터 무수한 사람들이 흐르는 강물에 슬픔도 함께 씻어버렸으리라.

흐르는 물은 정기적으로 하우스 콘서트를 개최하며 인천의 공연 문화를 이끌고 있다. ‘타악기의 대가 흑우 김대환’, ‘들국화의 조덕환’, ‘포크의 전설 양병집’… 한국 가요계의 한 획을 그은 이들은 모두 공연을 펼친 이력이 있다.

“인천은 음악 도시입니다. 등 굽은 소나무가 고향을 지키듯이 신포동에 오래도록 남아 인천의 문화를 지키고 싶습니다.”

☎ 인천시 중구 우현로39번길 19 2층 | 032-762-0076



‘음악 도시, 인천’에 뿌리 내린 큰 나무, 안원섭 대표

DJ가 사연 읽어주는 음악 카페, CCR

“오늘 씨씨알 뮤직 살롱의 첫 번째 신청곡입니다. 이문세의 ‘소녀.’” LP판이 뽐곡히 들어찬 부스에서 사연 읽어주는 DJ가 손님을 반긴다. 감미로운 목소리를 따라 시공간을 거슬러 1970~1980년대 동인천역 부근 작은 음악 감상실로 간다.

“40년 전만 해도 이 일대가 중심이었어요. 화려했어요. 동인천역과 신포동 일대에 음악다방도 많고, DJ도 많았고. 그 시절로 초대하고 싶어 이렇게 꾸민 거예요.” DJ가 있는 음악 카페는 박철희(69) 대표의 오랜 꿈이었다. 답동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기에 늘 신포동에 대한 향수가 있었던 그는 10년 전 남동구 만수동에서 CCR을 운영하다 5년 전 지금 자리로 둥지를 옮겼다.

“저도 예전에 ‘별 음악 감상실’, ‘심지 음악 감상실’ 많이 다녔어요. 음악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음악을 들곤 했어요.”

DJ 부스도 희귀하지만, 이곳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전면 벽을 채우고 있는 거대한 스피커들이다. JBL의 플래그십 스피커 에베레스트DD 66000, 매킨토시 MC275, 혼 스피커 등의 고급 장비를 통해 흘러나오는 최고의 음질은 CCR만의 강점. 박 대표는 “최고급 장비를 갖췄다고 자부한다”며 “음악을 트는 DJ도, 듣는 손님도, 카페에서의 시간만큼은 음악을 즐겁고 편하게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인천시 중구 신포로23번길 9 | 032-777-5015



DJ 부스의 박철희 대표. 10년 전 섬 일을 접고 신포동에서 그의 오랜 꿈을 이뤘다.



감미로운 분위기와 풍성한 음질을 더해주는 '매킨토시 MC275 진공관 앰프'



CCR의 인테리어는 '별 음악 감상실', '심지 음악 감상실'의 추억을 소환한다.



김유호(56) 대이작도 '풀등 밴드' 단장



학창 시절 송골매 김상복 씨의 베이스 소리가 좋아 기타에 빠졌다. 하나 녹록지 않은 생활로 음악을 접어둔 채 열심히 일했고, 여러 척의 배를 운영하는 선장이 되었다. 하지만 뜨거운 가슴을 채울 수는 없었다. 2017년 주민들과 '풀등 밴드'를 결성했고, 2018년부터는 대이작도에서 매년 '섬마을 밴드 음악 축제'를 열고 있다. 바쁘고 고단하지만 늘 갈망했기에 매 순간이 행복하다.

박철희 대표도 음악을 늘 갈망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10년 전 섬 일을 접고 음악 카페를 차린다고 했을 때, 내 일처럼 기뻐했다.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를 응원한다.

그런,
빛과
색

로고스의 암호, 60×120cm,
백유리·유약 소성, 2021, 조광호
깊고 짙은 '코발트블루빛'
비밀스러운 세상.
창 너머 갯벌에 물이 차오르면,
세상에 푸른빛을 퍼트린다.
'마지막 단계에서 완성된 세상'이
라는, 작가의 도상^{圖象}을 담았다.

‘인천, 그림이 되다.’ 낯은가 하면 새롭고, 평범한가 싶으면서도 특별한. 골목길만 지나도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도시, 인천. 추억이 그리움으로, 때론 일상으로 흐르는 공간이 작가의 화폭에 담겼다. 그 따뜻하고 섬세한 손길을 따라 인천 사람의 삶으로 들어간다. 이번 호에는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서 오롯이 빛나는 섬, 동검도. 조광호 신부와 김가빈 작가, 두 예술가의 눈으로 그 섬의 빛과 색을 본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전재천 포토 디렉터



마음에
빛, 반짝이다

— 봄이 오기 전이었다. 아직 찬 공기를 가로질러 동검도 바닷가 작은 예배당을 찾았다. 가슴이 답답한 사람, 외로운 사람, 쉽기 필요한 사람, 누구든 품어 안는 ‘마음의 집’. 그 집을 짓고 돌보는 조광호(75) 신부는 말했다. “씩이 돌고 꽃이 핀다고 봄이 아니다. 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긴 겨울을 버텨온 사람에게만 온다”라고. 그렇게 다시, 봄을 맞았다.

오늘 다시 찾은 동검도 ‘마음의 집’엔 가을 햇살이 비추어 들고 있었다. 물빛으로 투명하게 반짝거리는 햇살이다. 그 빛을 따라 채플^{chapel} 옆 스테인드글라스 갤러리로 발걸음을 옮긴다. 2층으로 올랐다. 삼면이 유리로 둘러싸였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세상. 스테인드글라스 사이로 빛이 스며들고 흔들리는 나뭇잎과 물결이 비추어 든다. 그 빛은 햇살의 농도와 기울기에 따라 시시각각 다르다.

공간 끝 창 모양의 프레임으로 눈길이 닿는다. 이름하여 ‘여여^{興興}의 창’. ‘있는 그대로의 창’이라는 뜻을 품은 조 신부의 유리화 작품이다. 작가는 하얀 도화지를 펼쳐 놓았을 뿐, 작품은 매 순간 하느님이 그려주신다. 어느 날은 바다가, 또 어떤 날은 하늘이, 땅이 작품의 주인공이 된다.

“제 그림은 아주 작은 세상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 거대한 자연을 끌어들이지요. 사람과 자연이 서로를 끌어안을 때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됩니다.” 창 너머 시간과 자연이 빚어놓은 세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잠시 멈춤, 다시 나를 만난다.



스테인드글라스 갤러리 작품
'여여^{興興}의 창' 앞에서, 조광호 신부(우)
'마음의 집' 동검도 채플(좌)

동검도 ‘마음의 집’에
가을 햇살이 비추어 든다.
물빛으로 투명하게 반짝거리는 햇살이다.
그 빛은 햇살의 농도와 기울기에 따라
시시각각 다르다.



Gorgeous Island 22gb21, 117×91cm, 철판·자개·아크릴, 김가빈
‘Gorgeous’ 아주 멋진, 섬을 향한 작가의 찬사다. 그림 속 풍경은 육지에서 바라보는 동검도이기도, 섬에서 바라보는 섬이기도 하다.

삶에
빛, 비추다

바다와 하늘,
곁에 외로이 떠 있는 작은 섬,
머릿속에 떠오르는 조형의 이미지를
아직 다 쏟아내지 못했다.
그토록 섬은 아름답다.



동검도 작업실에서 김가빈 작가

— 동검도라는 섬,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는가 보다. 조광호 신부는 20여 년간 작은 예배당 짓기를 꿈꿔왔다. 훗날 다리 건너, 드넓은 갯벌과 갈대숲, 나지막한 산과 들을 지나 동검도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단 30분 만에 ‘여서 꿈을 이루겠노라’ 마음먹었다. 미술 작가 김가빈(64)도 동검도를 ‘발견’하고는 주저 없이 터를 잡았다. 서울에서 태어나 도시 한복판에서 평생 살아온 그다. 강화도에 대한 기억은 학창 시절 미술 도구를 들고 시외버스에 무작정 몸을 실었던 때가 전부다. 강화도 남단 끝자락에 비밀스레 숨은 섬의 존재를 알 리 만무했다. 하지만 평생 대학과 학원에서 미술을 가르치며 생계를 위해 창작 욕구를 억누르고 살아온 삶. ‘이제는, 오롯이 작가의 이름으로 서겠다’고 결심했을 때, 동검도를 만났다. “동검도에서 예술가로서 삶의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섬의 자연과 심상이 제게 큰 영감을 주었지요.” 하늘과 바다, 보석처럼 점점이 박힌 섬, 밤이면 빛을 밝히고 매혹적인 실루엣을 드러내는 다리…. 두 눈 가득히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 풍경들. 섬에 머무른 지 어느덧 20여 년이 지났지만, 작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조형의 이미지를 아직 다 쏟아내지 못했다. 그토록 섬은 아름답다.



섬에
빛, 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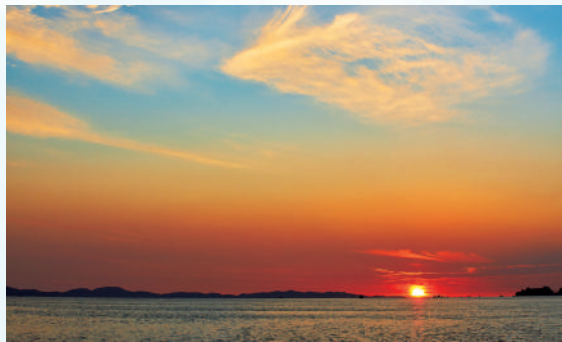
Fish Rhapsody Towards Utopia 22gb011, 50×50cm, 포슬린·24K 금·아크릴, 김가빈
섬 작업실 창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푸른 바다 깊숙이까지 닿는다. 그 안에서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는 ‘만물과 인연’이라는 심상을 담은 작가의 오브제다.

— 섬은 그리움이다. 닿는 순간 육지가 되고, 바다 건너 또 다른 섬이 펼쳐진다. 작가 김가빈에게도 그렇다. 동검도 남단 작업실 너머로 보이는 영종도와 이름 모를 작은 섬들. 섬에 살고 섬을 그리지만 섬이 그림다. 사실 작가는 외롭기를 자처한다. 밤낮으로 작업실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산다. “작가로 서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묵묵히 나만의 길을 걸어왔어요. 스스로를 담금질할수록 작품 세계는 더 견고해졌지요.” 벽 한 면에 난 창이 섬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느끼고 피고 지는 꽃을 바라보고 새소리 바람 소리를 듣는다. 나에게서 오롯이 섬으로 향한다. “창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끝없이 열려 있어요. 저 푸른 바다 깊숙이까지. 난 이 섬의 주인이에요.”

바닷속을 유영하는 물고기와 밤하늘의 별과 달, 금꽃나무, 빨간 열매, 들꽃과 곤충…. 섬의 심상에서 떠오른 ‘만물과 인연’을 담은 작가의 오브제다. 철판, 금, 자개 등으로 빚어낸 조각 하나하나가 빛난다. 섬의 빛과 색으로. “동검도엔 세상 모든 유채색과 무채색이 존재해요. 그 빛과 색은 계절마다 시간마다 다르게 빛나지요.” 별빛 쏟아지는 밤하늘도 푸르게 빛나다 어느 날은 보랏빛이 감돈다. 그 빛은 쌓이고 쌓여 검은빛을 드리우다 마침내 심연으로 빠져든다.



Morning Glory, 90×180cm, 백유리·투명 유약 소성, 2021, 조광호
싱그러운 보랏빛 꽃송이가 창문을 타고 올라와 아침을 깨운다. 그림이 자연인 듯 자연이 예술인 듯, ‘건축 아트 유리화’ 환경예술은 창 밖과 안의 세상을 하나로 잇는다.



세상에 빛, 차오르다

하늘빛이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 햇살이 노을로 부서져 빛으로 내려앉는다. 하늘과 바다가 하나로 물든다. 섬이 가장 빛나는 건 ‘일몰의 순간’이라고, 바닷가 작은 예배당의 신부님은 말한다. ‘황홀한 일몰의 앤솔로지anthology.’ 앤솔로지는 ‘꽃을 모아놓은 것’을 뜻하는 그리스어 안솔로기아anthologia에서 유래했다.

“붉은 노을이 바다에 닿아 다시 하늘을 물들이면, 순간 온 세상이 꽃 속에 든 것처럼 찬란하게 빛납니다. 하지만 그 빛은 이내 감쪽같이 사라져, 잠자고 있던 우수憂愁를 깨어나게 합니다. 마치 새벽빛에 만상萬象이 눈을 뜨듯.”

노을이 내린 동검도 바닷가와 채플.

“자연이 숨 쉬는 곳에서 사람도 숨을 트고,

한 점 우주의 먼지 위에서 온 우주를 가슴에 품습니다.”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건축 아트 유리화’는 빛나는 환경예술이다.

여여興興의 창, 150×150cm, 백유리·투명 유약·디지털 페인팅·소성, 2021, 조광호
‘여여興興의 창’. ‘있는 그대로의 창’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
어느 날은 바다가, 하늘이 주인공이 된다.
작가는 프레임만 만들었을 뿐 작품은 매 순간 하느님이 그려주신다.

어쩌면 이 세상 삶은 가뭇없는 한 줄기 빛과 같다. 짧아서 아름답고 붙잡을 수 없기에 더 소중하다. 세상에 1분 1초도 같은 시간은 없다.

“무수히 빛나던 별도, 타오르던 태양도, 서정의 강을 유영하던 달도 언젠가는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귀하고 의미 있습니다. 45억 년간 지구는 쉼 없이 숨 쉬어왔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영원합니다. 내면의 눈을 뜨고, 나 자신과 마주하세요.”

작은 섬, 작은 예배당이 품을 얻 지 반년이 지났다. 그동안 무수한 사람이 이 안에 머무르며 기쁨과 위안을 느꼈다. 잊고 살던 아름다운 날들을 돌아보고, 숨겨두었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다. 이 순간 바다가 갯벌로 스며들듯, 서서히 온전히 나에게로 다가간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차오른다. “하느님 앞에 당신은 눈부신 존재입니다.”

‘그냥 그대로 / 흠도 티도 가시지 않은 / 그 모습 그대로 / 아름다운 속 / 오, 눈부신 진리의 여여함이어 // 그냥 그대로 / 흠도 티도 가시지 않은 / 그 모습 그대로 / 당신도 하느님 앞에 눈부시구나’.
- 조광호 ‘여여함으로’

동검도 바닷가에 어둠이 덮인다. 햇빛이 사그라지고 노을도 스러졌지만, 마음속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빛을 가리면 ‘어둠’이 됩니다. 사실 어둠은 실체가 없습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지요. 마음의 눈을 뜨면 하느님의 ‘빛’이 내 안으로 다가옵니다.” 섬의 밤이 깊어간다. 어둠이 짙어가고 세상에 여백을 드리울수록, 마음의 빛은 더 밝게 빛난다.

동검도 채플 & 갤러리 인천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 245, 010-8876-2525

유리화·조광호 조광호 신부는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이자 독일 뉘른베르크 조형예술대학교를 졸업하고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활동을 해온 예술가다. 은퇴 후 동검도에서 채플과 갤러리를 열고 문화예술 영성 사목과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오브제 회화·김가빈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다. 54회의 개인전과 380여 회의 단체전을 열었다. 동검도 안에서 철보·금·메탈·아크릴 등을 소재로 기존 장르를 벗어난 현대미술을 추구하고 있다.



‘황홀한 일몰의 앤솔로지’.
노을이 내리는 동검도 바닷가에서, 신도들과 조광호 신부

하늘에서, 만남 세상



취재 영상 보기

이제 화개산에서 교동도 여행의 마침표가 찍힐 듯하다. 모노레일을 타고 화개정원을 지나 전망대에 오르는 여정은 여행자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충분하다. 목적지 끝에는 가마득히 높던 하늘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다. 가을이라지만 유난히도 맑은 날. 2.5km 바다를 사이에 둔 북녘땅이 손에 잡힐 듯하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숨 막히도록 아름답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류창현(드론)·전재천 포토 디렉터



1



2

1. 강화 화개산 모노레일
2. 햇살에 젖어 빛나는 교동도 앞바다
3. 화개산 전경. 레일 끝에 전망대가 솟아 있다. 남쪽, 아름다운 우리 땅과 바다를 향한 방향이다.



3

산을 오르는, 새 길

교동도 화개산으로 오르는 새 길이 열렸다. 해발 260m, 화개산은 교동도에서 가장 높지만 산세가 완만하고 너그럽다. 슬슬 걸어 올라도 두 시간이 채 안 걸린다. 걸어도 즐겁지만 탈것에 몸을 실어도 기분이 새롭다. ‘강화 화개산 모노레일’. 섬의 새로운 즐길 거리를 벌써 알고 평일인데도 사람이 모여 들었다. 나이 든 어르신들과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온 가족 단위 관광객이 눈에 띈다.

노란색 모노레일 열차가 반갑다. 열차는 5분마다 승차장에서 사람들을 싣고 길을 나선다. 느릿느릿, 구불구불 산길을 오른다. 유리창 너머로 막고운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 나무숲이 스쳐 지난다. 그 사이로 가을 햇살이 찰랑이며 부서져 내린다. 오르막길에 들어서자 몸도 따라서 기우뚱, 까르르 웃음이 터져 나온다.

높이 오를수록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과 햇살에 일렁이는 바다가 시야를 가득 메운다. 급기야 가깝고도 먼 북녘땅까지 시선이 닿는다. 신선한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진한 풀 향기가 코끝에 닿는다. 아, 가을이 무르익었다.

하늘, 더 가까이

하늘과 가까운 곳에 다다랐다. 열차가 멈춰 섰다. 20분 남짓, ‘지상에서 영원’까지의 여행은 짧게 끝났다. 현재 화개산 정상에는 전망대를 조성하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올해 말이면 세상에 위풍당당한 모습을 선보인다.

강화군에 허락을 구하고 공사 중인 전망대에 미리 올랐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린다. 온통 파란 세상이 시야를 압도한다. 32m 높다. 가마득히 높던 하늘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다. 15층 아파트 꼭대기 높이에서 투명 유리 바닥 아래로 펼쳐진 세상은 보는 것만으로 아찔하다. 살얼음을 밟듯이 구름 위를 걷듯이, 그 위를 걷는 기분이란.

북쪽 전망탑에 서면 예성강을 따라 펼쳐진 황해도 연백평야가 보인다. 남북을 사이에 둔, 단 2.5km의 바다. 그리워도 가까이 있어도 닿을 수가 없다. 시야를 남쪽으로 돌린다. 우리가 밟 딛고 사는 이 땅이 이토록 아름다웠던가. 황금빛 너른 품으로 섬을 아우르며 일렁이는 산과 들, 바다는 맑은 가을 햇살을 받아 파랑디파랑게 빛나고 있다. ‘아름다움에 숨이 막힌다’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말이리라.



1. 이달 임시 개장하는 화개정원
2. 올해 말 완공을 앞둔 화개산전망대.
32m 높이의 스카이워크형 전망대다.
3. 화개산을 오르는 모노레일 열차



4. 화개산을 따라 이어진 모노레일 길
5. 화개산 전경. 북녘땅과 바다를 향한 방향이다.



여행은 계속된다

올라오면 내려가기도 해야 한다. 우리네 인생사의 높고 낮음,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것처럼. 산에서 내려갈 때는 모노레일을 타는 대신 걷기로 했다. 그 길, 떠날 때의 두근거림은 없지만 위로와 격려가 발걸음을 함께 맞춘다. 느리게 걷다, 잠시 서서 긴 호흡을 내쉴다.

햇살이 스러지면 철책을 두른 채 저 멀리 물러나 혼자가 되는 섬, 교동도. 이 섬에 오면 닿을 수 없는 북쪽 땅만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오늘은 하늘 가까이 올라 시선을 남쪽으로 돌렸다. 우리가 지금 밟 딛고 선 땅이 이토록 아름답다는 걸,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문득 깨달았다. 삶을 온전히 느끼고 사랑하게 됐다. 하루가 채 안 되는 짧은 여정. 낯선 여행지에서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

강화군은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개산 정상에는 화개산전망대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32m 높이의 스카이워크형 전망대다. 화개정원은 이달 개장할 계획이다. 정원은 물, 추억, 역사문화, 평화, 치유의 정원 다섯 가지 테마로 꾸몄다. 모노레일은 민간투자로 설치됐다. 왕복 2km, 40분 코스다.

강화군 정물관리사업소 문의 032-932-2336-2337
강화 화개산 모노레일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동로 471번길 6-60, 문의 032-933-3300



| 영흥도 바다로 이어지는 꾸지나무정원의 '바닷길'

섬, 바다 그리고 정원

영흥도는 2001년에 다리가 놓이며 '섬이 아닌 섬'이 됐다. 인천시청에서 영흥대교까지 51km, 승용차로 한 시간 남짓. 훌쩍 떠나기 좋은 가까운 섬이지만, 섬이 빚어내는 풍광은 이국적이고 평화롭다. 낙원 같은 섬, 영흥도에 위치한 정원을 찾아가봤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유승현 포토 디렉터

바다 건너, 가을 정원

차로 와도 섬은 섬이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소금기 어린 공기에 가슴이 일렁인다. 담담하고 순한 빛을 띤 바다 위로, 가을 하늘이 외롭게 잠겨 있다. 바다를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걸음을 옮겼다. 영흥면사무소에서 바다로 가는 길, 그곳에 아름다운 정원이 숨어 있었다.



나무 사이로 가을이 스며들고 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황금빛 소나무의 향기는 섬 너머 바다로 번져나갈 것이다.



| 순한 빛을 띤 바다 위로 황금빛 노을이 잠겨 있다.

고향 집터에 가꾼 섬마을 정원

영흥도 바다를 품고 있는 ‘꾸지나무정원’. 한눈에 담기 어려울 만큼 넓은 광활한 땅에 무수한 나무와 꽃이 자라고 있다. 조용한 섬마을에 나무정원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는 사람은 영흥도 출신 김의복(65) 씨. 반에서 제일 가난하던 섬마을 소년이 ‘회장님’이 되어 23년 전 고향의 생가터를 사들였다. 지금도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풀을 베고 흙을 다지며 구슬땀을 흘린다.

정원을 다 둘러보려면 최소 두 시간. 나무 사이로 정갈하게 난 길을 따라 걸으며 바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섬처럼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와 야생화를 찾아 심었다. 해풍을 맞고 자란 꾸지뽕나무는 원래 영흥도에 자생하던 붉은 열매다. 탐스럽게 익은 꾸지뽕은 이 계절에만 맛볼 수 있는 붉은 선물이다.

정원과 마주 보고 있는 ‘섬꾸지카페’에서 상쾌한 바닷바람에 맘을 식힌다. 바다와 맞닿은 정원에 울긋불긋 가을색이 스며들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황금빛 소나무의 향기는 섬 너머 바다로 번져나갈 것이다. 노을이 지는 바다에 시선이 머문다.

주소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251번길 85-5 섬꾸지카페
이용 방법 매주 월요일 휴무 | 정원은 전화 예약 후 이용 가능(유료)
가는 길 대부도, 선재도를 거쳐 영흥도까지 다리로 연결돼 차로 달려갈 수 있다.



해풍을 맞고 자란 꾸지뽕나무의 붉은 열매(위)
23년 동안 고향 집터에 나무 정원을 가꾼 김의복 회장(아래)



| 꽃처럼 피어난 갈대, 샛노란 탕자... 카페 곳곳에 놓인 가을 열매, 가을에는 열매가 꽃이다.



하늘에서 본 꾸지나무정원과 섬꾸지카페.
순한 능선이 바다를 향해 뻗어 있다. 바다 건너 저만처에 방금 건너 온 영흥대교가 보인다.

‘세상에 없던 프로야구’ SSG 랜더스 ‘와이어투와이어’ 정규시즌 우승



지난 10월 4일, SSG 랜더스(이하 SSG)는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 지었다. ‘세상에 없던 프로야구단’을 선포하며 SSG가 KBO 리그에 도전장을 내민 지 불과 2년 만의 일이다. SSG의 우승을 통해 인천은 다시 한번 ‘야구의 도시, 구도^{球都}’임을 입증했다. 올 시즌 최고, 최다, 최대 타이틀을 연일 갈아치우며 대한민국 야구의 역사를 다시 쓴 SSG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사진 SSG 랜더스 제공



지난 9월 25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 경기 장면



SSG 랜더스 응원단장



타석에 선 박성한 선수

정규시즌 내내 1위 고수

SSG의 정규시즌 우승, 구도 인천에 오랜만에 들러온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SSG의 전신인 SK 와이번스 시절을 포함해 2010년 이후 12년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인천 연고의 SK 와이번스와 SSG는 2007년, 2008년, 2010년, 2022년 총 4회 정규시즌 우승을 거머쥐었다.

특히 SSG는 40주년을 맞은 KBO리그 역사상 최초로 정규시즌 ‘와이어투와이어^{wire-to-wire}’ 우승이라는 대기록도 함께 달성했다. 정규시즌 개막일부터 종료일까지 1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우승한 것이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도 다섯 번만 있던 진기록이다. SSG는 4월 2일 창원에서 펼쳐진 NC 다이노스와의 개막전에서 4-0으로 승리하면서 공동 1위로 출발해 정규시즌 내내 1위를 지키며 마침내 우승까지 차지했다.

SSG는 2021년 창단과 함께 빠른 팀 재건을 위해 메이저리그 출신 타자 추신수 선수를 영입했다. 올해에도 메이저리그 출신 투수 김광현 선수를 영입해 공격과 수비를 모두 강화했다. 또 올해 정규시즌을 앞두고 팀 주축 선수인 문승원, 박종훈, 한유섭과 KBO 최초로 비[※] FA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 야구에서는 FA 이전에는 한 해씩 계약하고 FA 때 다년 계약을 하는데, SSG는 KBO의 비 FA 다년 계약 방침이 정해지자 실행에 옮겨 선수들과의 믿음을 공고히 했다. 그뿐 아니라 투수진을 보강하기 위해 베테랑 선수인 좌완 고효준, 우완 노경운을 영입해 우승을 향한 탄탄한 전력을 구축했다.

SSG 랜더스 정용진 구단주(오른쪽)와 주장 한유섭 선수(왼쪽)가 지난 10월 5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KBO리그 정규시즌 우승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대한민국 야구 역사상 이런 팀은 없었다

SSG는 올 시즌 다양한 기록도 쏟아냈다. 먼저 4월 2일 창원에서 진행된 NC 다이노스와의 개막전에서는 선발로 나온 월머 폰트 선수가 KBO 최초로 비공인 9이닝 퍼펙트 경기를 기록했다. 월머 폰트 선수는 선발 등판해 9이닝 동안 상대 타자 단 1명도 출루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팀 타선의 침묵으로 연장 10회로 이어지며 김택형 선수에게 마운드를 넘겼고, 뒤늦게 타선이 폭발해 4점을 몰아치며 우승했다. 월머 폰트 선수 이닝에서 경기가 끝나지 못해 비공인으로 남게 됐으나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SSG는 개막전 이후 10연승을 하면서 개막 최대 연승 타이기록도 세웠다. 2003년 삼성 라이온즈가 세운 개막 최대 연승과 같은 기록이다.

팬들의 열기도 성적과 비례했다. 9월 30일 마지막 SSG 홈경기에 2만 422명이 방문하며 누적 관중 수 98만 1,546명을 기록했다. SSG는 인천 연고 팀 최초로 10개 구단 가운데 홈 관중 수 1위라는 타이틀도 거머쥔 것이다.

마지막 홈경기에서 주장 한유섭 선수는 마지막 끝내기 홈런으로 인천 SSG 랜더스 필드의 주인공이 됐다. 이날 한유섭 선수는 키움 히어로즈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 말, 끝내기 만루포를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어 대미를 장식했다. SSG의 창단 첫 정규시즌 우승을 이끈 김원형 감독은 “SSG의 우승은 구단, 선수단, 팬이 삼위일체가 되어 만들어낸 결

과”라며, “개막 전부터 1위를 지킨다는 것이 선수단에게는 큰 도전이었고 어려운 상황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선수들은 하나가 되어 이겨냈고, 경기장에서 열광적으로 응원해 준 팬분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민경삼 대표는 “SSG가 창단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하기까지 열정적으로 응원해 준 인천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구도 인천’의 뜨거움을 오랜만에 느껴서 감회가 새로웠다. 이제 한국시리즈가 남아 있는데 잘 준비해 인천에서 우승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시리즈 우승을 향한 SSG의 힘찬 도전은 시작됐다.

지난 9월 30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KBO리그 정규시즌 우승 시상식



INTERVIEW

SSG 랜더스 선수들의 정규시즌 우승 소감



노경은

‘와이어투와이어’로 정규시즌 우승을 한 SSG의 일원이어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올 시즌 SSG에서 주축 선수로 경기를 뛰고,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할 수 있어 기쁘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시리즈에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것이 앞으로 첫 번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동료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성한

‘와이어투와이어’로 정규시즌을 우승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팀이 우승하기까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 기쁩니다. 정규시즌 우승을 넘어 한국시리즈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하겠습니다. 정규시즌 동안 팬들을 비롯해 고마운 분이 너무 많은데, 한국시리즈에서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한

정규시즌 우승을 이뤄 기쁩니다. 144경기 모두 최선을 다해 우승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시리즈에서 웃는 팀이 최후의 승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잘하겠습니다. 전반기에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후반기에 조금이나마 팀에 보탬이 된 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 마지막까지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SG LANDERS



한유섭

올 시즌을 돌이켜보면 주장을 맡았지만, 모든 선수가 다 잘해줘 주장으로서 특별히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막전부터 너무 잘해준 모든 선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시리즈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고, 마지막으로 올해 관중 수 1위를 기록하게 해주신 우리 팬들, 정말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최지훈

올 시즌을 도와준 감독님과 코치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주위 선배님과 올해 계속해서 응원해준 팬들에게도 고맙습니다. 아직 끝이 아닌 만큼 지금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마지막까지 잘 준비해서 한국시리즈를 기본 좋게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원석

우리 팀이 ‘와이어투와이어’로 정규시즌 1위를 해서 기분이 좋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국시리즈에서도 정규시즌 그 이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시즌 홈 최종전에서 한유섭 선배님의 만루홈런 끝내기가 가장 기억납니다. 그동안 선배님들 모두 잘해줘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시리즈에서도 매 경기 맡은 임무를 완수해 팀 우승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태양

정규시즌에 우승하여 기쁩니다. SSG 팀의 일원으로서 우승에 기여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좋은 팀에서 좋은 선후배, 동료를 만난 덕분에 이렇게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매 경기 선수들에게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신 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한국시리즈에서도 꼭 우승하겠습니다.



다동이 키우기도 힘든데 교통 봉사만 15년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 사진 김성환 포토 저널리스트



이
옥
금



아침 8시, 인천주원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녹색어머니회 정복을 입은 여성이 ‘매의 눈’으로 사방을 살피는다. 우회전 시 ‘일단멈춤’을 하지 않는 차량은 없나, 정지선은 잘 지키나?

“뻑! 뻑-빅!” 횡단보도 가까이 다가오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오토바이를 향해 부는 여성의 호루라기 소리가 요란하다.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던 오토바이가 주춤하더니 정지선에 멈춘다. 쓰윽. 여성이 흡족한 표정으로 빨간색 교통지도봉을 들어 올리자 한 무리의 아이들이 밝은 표정으로 길을 건넌다. 여성도, 아이들의 얼굴도 가을 아침 햇살을 닮아 있다.

주원초등학교 학부모회 이옥금(47) 회장. 평일 아침 등교 시간 주원초등학교 인근엔 언제나 그가 서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난 15년간 그는 ‘어린이 안전 교통지킴이’로 줄곧 아이들을 지켜왔다.

“첫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우리 아이 안전은 엄마인 내가 직접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15년이 흘렀어요. 보람의 기쁨이 없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회장은 첫째 아들 정종진(21) 씨가 주원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녹색어머니회 봉사를 시작했다. 이후 둘째 아들 종훈(18) 군이 태어났고, 셋째 서희(12) 양까지 같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봉사 활동을 놓을 수 없었다. 몸과 마음이 힘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꾸욱 참고 아침이면 어김없이 학교 근처 횡단보도로 나갔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첫애가 1학년일 때 둘째가 다섯 살이었거든요. 아이들 밥 해 먹이라, 교통 봉사하라 솔직히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찌겠어요. 아이들 안전과 생명이 걸린 일인걸.” 지금도 떠올리면 눈물이 흐르는 일도 있었다. 진눈깨비가 내리는 어느 겨울날이었다. 봉사 시간에 늦을까 뛰어가다 그만 눈길에 심하게 미끄러지고 말았다. “당시 제

배 속에 아이가 있었거든요.” 유산한 뒤 다시 셋째를 갖기까지 3년이 더 걸렸다.

그가 단순히 교통 정리만 하는 건 아니다. 아이들이 위험할 만한 곳을 찾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그의 일상이다. 주원고개사거리 석바위 방향 샛길을 인도로 만든 건 이 씨의 활약 덕분이었다. “신호등이 없는 길이다 보니 차고 오토바이고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길이었지요. 국회의원, 구청장님 따라다니며 대책을 세워달라고 졸랐어요.” 주원초등학교 후문 일방통행로 도로 재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에 코로나19 기간에 비대면 서명까지 받아가며 수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학교 열혈 봉사자’인 그가 교통 봉사만 할 리 만무하다. 학교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등을 맡아 꾸준히 활동을 해왔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는 우문에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활짝 웃는 이 회장의 미소에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가 영글고 있었다.



이옥금 회장이 인천주원초등학교 앞에서 교직원들과 함께 안전한 스쿨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 최유림

빨래터카페(사진 아래)로
부활한 옛 성진여인숙



상인·노동자·학생들의 보금자리 사라져간 배다리 여인숙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깜박깜박 명멸하는 간판을 보고 발을 들여놓는다. 입구는 어두컴컴하다 못해 음침하기까지 하다. 작은 창을 통해 얼굴을 내민 주인이 손님을 올려다본다. 위아래로 훑어본 주인은 요금을 먼저 지불하라고 말한다. 돈을 받은 주인이 양은 주전자와 ‘빨컵’(사기로 만든 컵) 1개를 담은 양은 쟁반을 건넨다. 기껏해야 한두 평에 불과한 방의 세간살이라곤 이부자리 1벌, 베개 1개가 전부. 피곤했던 나그네는 옷도 양말도 벗지 않은 채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든다.

배다리 일대엔 과거 수십 개의 여인숙이 있었다. 여인숙은 배다리시장이나 동인천역을 거쳐 가야 하는 사람들의 보금자리였다.

배다리시장엔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댔다. 청과물을 파는 참외전거리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6·25전쟁 이후엔 더 복잡해졌다. 인근 산동네에 피란민들이 정착

하며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아졌던 것이다. 철교 부근 너른 공터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됐고, 온갖 잡다한 물건이 시장에 나왔다. 낡은 옷가지, 양은 술, 향아리, 장작부터 채소, 과일, 생선 등 먹거리에 이르기까지 없는 게 없었다. 토끼와 노루 고기는 물론 입담이 걸쭉한 뱀 장수와 옛판을 목에 건 소년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서구 지역인 ‘개건너’ 마을에선 나룻배를, 김포·강화에선 시외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이 배다리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자신이 가져온 물건을 다 팔고 돌아가야 했다. 거리도 멀거니와 교통편도 여의치 않아 쉽게 오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었기 때문이다.

상인들뿐만이 아니었다. 부두에서 찾아온 뱃사람들부터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의 사람이 여인숙을 이용했다. 박태선 장로의 인천전도관을 비롯해 창영교회, 제삼

교회, 송현성결교회 같은 배다리 인근 대형 교회가 개최한 ‘심령대부흥회’에 참여했던 신도들도 여인숙을 찾았다. 부흥회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 이상 이어지기도 했다. 기숙사가 없는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도 여인숙의 단골 고객이었다. 1980년대 이전엔 통행금지에 걸린 사람들이 파출소 대신 여인숙을 택하기도 했다. 철교 아래 있던 배다리파출소에서 막차를 놓치거나 야간 통행금지로 오도 가도 못 하는 사람들을 여인숙으로 보냈던 것이다. 인근 미림극장이나 문화극장에서 마지막 프로를 보고 나온 연인들의 숙소도 여인숙이었다. 동구 토박이인 김학균(76) 시인은 “배다리 일대는 채미전(참외전) 가게에 채소나 과일을 팔러 오는 사람들, 올림포스호텔 아래 배를 대고 생선을 팔러 온 사람들, 만석부두 근처 노동자들이 묵어가던 곳”이라며 “동인천이 사동팔달 요충지이다 보니 화평동, 화수동, 송현동 사람들을 비롯해 인천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이 애용하던 거처가 여인숙이었다”고 말했다. 여

관과 모텔이 등장하며 여인숙은 품팔이 노동자나 홀몸 노인들에게 ‘장기방’이나 ‘달방’ 같은 새로운 거처로 명맥을 이어가거나 하나둘 사라져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만 해도 지금의 ‘아벨서점’ 뒤쪽 골목엔 3개의 여인숙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진도, 길조, 성진이란 이름을 가진 여인숙이었다. 곽현숙(72) 아벨서점 대표는 “1970년대 배다리 일대엔 50여 개의 여인숙이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진도, 길조, 성진여인숙은 2014년까지도 영업을 했다”고 말했다.

이 세 여인숙이 지난 9월 1일 ‘배다리 아트스테이1930’이란 문화예술 공간으로 피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고 있다. 정창이(48) 배다리 아트스테이1930 대표는 “7, 8년 전쯤 이곳을 지나는데 여인숙들이 눈에 띄어 문화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며 배다리 빨래터를 발견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 최유림



아트스테이1930
(사진 아래)으로 변한
배다리 여인숙 골목

10억 년 전 지구의 흔적, 소청도를 이루다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인천 연안부두에서 직선 거리로 약 166km 떨어진 섬. 인천 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는 남북 폭이 좁고(약 1km 미만) 동서가 긴(약 5km) 형태로 이뤄진 보석 같은 섬이다. 이 아름다운 섬엔 후기 원생대(약 12억 년~10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석이 존재한다. 이름하여 '스트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이다.

소청도엔 바위 색이 분을 바른 것처럼 하에서 '분바위'라 부르는 화석이 있다. 달이 밝을 때 바다 쪽에서 바라보면 흰색의 긴 띠처럼 보여 '월띠'라고도 부른다. 분바위와 월띠는 신원생대(10억 년~5억 4000만 년 전) 생성된 석회암들이 높은 온도와 압력에 구워지고 뭉쳐서 대리암으로 변한 것이다.

그 분바위 사이사이 굴꺾길처럼 생긴 암석층이 존재한다. 지질시대에 활동한 남조류 박테리아들이 굳어진 화석인데 이게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이다. 이 화석은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으로 알려졌다.

황백색의 석회암에서 발견되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소청도 남동 해안을 따라 분포한다. 예동포구, 낭너머, 노하동포구, 소청등대 남동쪽 해안, 분바위 어력금, 분바위 주차장 부근 등에서 신비의 화석이 고색창연하게 빛나고 있다.

스트로마톨라이트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은 분바위 어력금 지점이다. 예동포구에서 동남쪽으로 약 2km 떨어진 위치다. 주로 녹색 사암으로 이뤄진 이 지역의 중·상부



소청도 분바위 앞에는 홍합 발이 펼쳐져 있다.

는 스트로마톨라이트를 함유한 자주색 셰일^{shale}(퇴적암)과 석회암으로 구성돼 있다. 최상부는 회백색 석회암으로 덮여 있다. 분바위 앞바다엔 자연에서 자란 싱싱한 홍합 발이 펼쳐져 있다.

요즘 들어 10억 년 전 화석을 보기 위해 소청도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소청도는 10억 년 전 화석을 품고 있는 신비의 섬이다.

푸른 가을하늘에 퍼진 연둣빛 차의 향기

전국차인큰잔치 & 전국인설차문화전 차예절 경연대회 ‘성료’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지난 10월 22일 열린 차문화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티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가천문화재단)

더없이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 그 하늘 아래서 가을바람을 맞으며 차^{*}를 마시는 사람들. 천고마비의 계절, 인천도호부관아에선 전통문화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차의 꽃처럼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났다. 지난 10월 22일 ‘제42회 차의 날 기념 제33회 전국차인큰잔치’와 ‘제23회 전국인설차문화전 온라인 차예절 경연대회’가 성료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열린 이날 잔치에선 전국 곳곳의 차인이 만든 차를 재료로 한 음식 50여 점이 열띤 경연을 벌였다. 대회에선 순천지방 이강자 회원의 ‘풍경 속 다양한 정과들의 이야기’가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 또 온라인 차예절 경연대회에선 이성용(가천대 응급구조학과 2년) 학생이 대학부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고등부 최우수상은 임영욱(인천하늘고 2년), 박지원(삼산고 1년) 학생에게 돌아갔다. 행사장에선 가족 단위의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직접 가마솥에 차를 띄어내는 차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또 박하, 쑥, 천궁, 당귀, 계피를 섞어 만드는 전통 향낭 만들

기 체험, 노리개 만들기, 전통 연 만들기 같은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돼 시민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녹차와 황차, 가루차, 홍차, 냉차 등 아름다운 차를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시민들의 눈과 코를 행복하게 해주었으며, 시음회를 통해 차를 맛볼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전통 차 문화를 시민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널리 확산하기 위해 한국차문화협회와 인천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가 공동 주최했다. 우리나라 차 문화는 일제강점기 말살된 것을 고^故 이귀례 한국차문화협회 명예이사장이 평생을 바쳐 차 문화 보급과 정립에 힘써 되살려 냈다. 이귀례 명예이사장은 우리나라 1세대 차인으로 차 문화 대중화에 큰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최소연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은 “인설차문화전은 청소년에게 전통문화인 차 예절을 알리고 차세대 차인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축제”라며 “우리 민족의 생활이자 정신 문화의 꽃인 차 문화 축제는 우리나라가 차를 통해 세계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상을 받고 있다.

국내 최초

사회복지 뮤지컬

‘사랑의 포스트’



김진태 이경영 이화영 김인숙

창작 뮤지컬 하면 흔히 ‘오페라의 유령’이나 ‘맘마미아’ 같은 스펙터클 대작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런데 여기, 지금까지의 형식과는 많이 다른 뮤지컬 한 편이 무대에 오른다. 창작 뮤지컬 ‘사랑의 포스트’는 화려한 춤과 과장된 연기, 높은 가창력보다는 배우들의 명연기와 작품 저변에 흐르는 메시지로 승부하는 작품이다. 이혼과 청소년 문제, 젊은이들의 사랑과 일탈, 노숙자, 노인 문제를 4개의 에피소드로 보여주며 우리 사회 어두운 곳에 손을 내민다. 4개의 이야기는 록과 힙합, 가요 등 여러 개의 장르로 관객에게 다가선다. 9세부터 70세까지 출연진도 거의 모든 세대를 아우르게 짜였다. 2009년 제3회 뮤지컬 어

워즈 남우주연상과 2006년 KBS연기대상 우수연기상을 수상한 김진태가 할아버지 역할을 맡았다.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 개성 넘치는 연기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경영은 이 작품의 터줏대감을 연기한다. 여기에 안방극장과 연극무대에서 오랫동안 활약해 오고 있는 이화영, 황선정, 김인숙 등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들이 호흡을 맞춘다. 스타 시스템에 의존하기보다는 작품성에 무게를 두었으면서도 재미와 감동이 공존하는 작품이다. 따뜻한 인간애가 흐르며 공익적 빛깔이 짙다. 오는 11월 11일~12일 서구문화회관, 18일~19일 부평아트센터 대공연장 무대에 오르는 이 작품은 한 회 2시간 30분, 총 6회(금 오후 7시, 토 오후 4시) 공연한다.

한인 이민자들,

120년간 그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올해는 한국 이민의 역사가 120주년을 맞는 해이다. 인천시는 이를 기념해 인천과 하와이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한다. 공식 행사, 핵심 사업, 기획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이민사의 역사성과 문화적 다양성, 역동성, 포용성을 품은 인천의 정체성을 재조명한다. 전 세계로 뻗어나간 한인의 이민 역사를 조명하는 사진 영상 특별전이 오는 11월 20일까지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열린다. 한인 이민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망라하는 700여 점의 작품이 야외·특별전시장에서 전시된다.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한 동포 작가들의 예술 작품 특별전이 오는 11월 27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 B동 전시장과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해외 동포 예술가 중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작업하는 12개국 23명의 회화, 영상, 사진, 조각, 미디어 설치 작품 등



4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하와이 현지에서는 오는 12월 17일~22일 인천시립무용단의 축하 공연을 비롯해 하와이 한인 이민의 역사를 조망하는 사진전이 열린다. 인천시는 앞서 ‘120년 기행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꿈’ 영상을 케이블TV를 통해 방영했으며, 한미수교 140년과 한인 이민 120년을 기념하는 ‘2022 세계한인회장 대회’와 ‘제16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했다.

⑩ 밤의 시작과 끝

글 안보윤



일러스트 송미정

동현은 자신의 몸보다 큰 이불 보따리를 끌어안고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다. 이불은 크고 부드러웠으나 묵은 먼지 냄새가 났다. 이사한 뒤 반년이 넘도록 상자 안에 방치되어 있던 탓이었다.

질은 회색의 구스 이불은 동현의 어머니가 사다 준 것이었다. 동현의 자취방을 처음 찾아오던 날 어머니는 봉어빵 한 봉지와 이불 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왔다. 따뜻한 것과 뜨거운 것, 어느 쪽을 받아들여도 더운 것이 한 손에 남았다. 작고 낡은 집들을 전전하는 동안 동현은 줄곧 이 이불과 함께였다. 자리에 누워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면 두툼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다. 달콤한 팔랑금 냄새가 맴도는 것 같기도 했다. 혹독한 경험을 할 때마다 동현은 이불 속에 자신을 밀어 넣었다. 안전한 기분과 다정한 위로. 가족을 떠나 혼자 살게 된 뒤로 동현에게는 그런 것들이 자주 필요했다.

동현은 사거리 편의점에 이르러 잠시 숨을 골랐다. 동네 동쪽에 자리 잡은 원룸촌에는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판매점이 많았다. 편의점 맞은편 건물에도 셀프 빨래방과 인형 뽑기방이 나란히 위치했다. 동현은 빨래방으로 들어가 세탁기에 이불을 넣었다. 자판기에서 구매한 세제를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려는데 뒤에서 돌연 큰소리가 났다.

“세제, 따로 넣어야 하는 거였어요?”

돌아보니 동현 또래의 여자가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세탁기도 건조기도 전부 세제 넣어야 해요. 동현의 말에 여자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망했네, 망했어. 세탁기 버튼을 누르던 동현이 여자의 혼잣말에 작게 웃었다.

“예전 동네에서 다니던 빨래방은 세제가 자동으로 투입되는 방식이었거든요.”

“아, 새로 이사 오셨군요.”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이 동네에 오래 사셨어요?”

동현이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반년이면 오래 산 듯도, 아닌 듯도 해서였다. 빨래가 다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여자가 있는 테이블 위에 작은 생수병과 책이 한 권

놓여 있었다. 세탁기 두 대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미묘하게 어그러진 소리를 냈다. 동현은 여자가 앉은 테이블 반대편 끝에 앉았다. 저기…… 뭘 좀 여쭙봐도 될까요? 잠시 머뭇대던 여자가 동현에게 물었다.

“그 고양이, 왜 이름이 만두예요?”

“네?”

“실은 제가 이 위층에 살거든요. 제 방 창문을 열면 편의점이 정면으로 보여요. 편의점 테이블이랑 상자로 만들어준 고양이 집도요. 그쪽이 고양이랑 놀아주는 모습도 여러 번 봤어요. 머리가 엄청 큰 얼룩 고양이, 그 애 이름이 왜 만두예요?”

동그란 세탁기 창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는 이불이 보였다. 건조기까지 다 돌리려면 넉넉잡아 두 시간은 걸릴 터였다. 그냥 만두가 아니예요. 동현이 여자에게 말했다.

“풀 네임은 왕만두. 머리가 엄청 큰 고양이답게 왕씨랍니다. 미남이고요.”

여자의 이름은 정연으로 동현보다 한 살이 많았다. 정연은 자신의 빨래가 모두 건조된 뒤에도, 동현의 이불이 건조기 속으로 옮겨간 뒤에도 돌아가지 않았다. 빨래들을 천천히 꺼져 천 가방 안에 챙겨 넣으며 정연은 여전히 동현과 대화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고양이에서 날씨, 직장 얘기를 돌아 취미 이야기로 흘러갔다. 정연은 달리기가 취미라고 했다.

“이 동네로 이사 와서 좋은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고양이에게 친절한 거예요. 그런 동네는 웬지 정감 있어 보이잖아요. 둘째는 달리기 딱 좋은 산책길이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산책길이 있어요?”

“그럼요. 길이 제법 재미있어요. 저기 북쪽에 있는 언덕이 정면에서 보면 엄청 가파르잖아요? 계단도 많고 비탈길이고. 근데 뒤로 빙 돌아서 가면 이팝나무랑 철쭉을 잔뜩 심은 흙길이 있어요. 중간에 식수대도 있고 언덕 꼭대기에는 배드민턴 치는 공터도 작게 있고요. 그 길이 이 동네

전체로 이어져요. 언덕 꼭대기에서부터 동네 동쪽에 있는 작은 카페와 빵집들이 있는 골목, 남쪽 아파트 단지과 연결된 가족 공원, 서쪽 주택 단지 끝에 있는 재래시장까지 전부 하나의 길로 연결돼 있거든요.”

다채롭고 조화로운 산책길,이라고 정연은 말했다. 정말로 즐거워 보이는 얼굴이었다. 동현은 재래시장의 기름떡볶이와 카페에서 파는 무화과 스콘, 흙길에 누군가 심어두고 간 튜립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연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정연 씨, 혹시 여기 이사 올 때 부동산에서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이 동네는 동서남북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 사는 모습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어떤 집에 사느냐가 그 집에 사는 사람을 정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가요. 동현이 중얼거렸다. 건조기에서 종료음이 울린 건 그때였다. 잘 마른 이불을 꼬집어내자 뜨거운 기운이 훅 끼쳤다. 정연이 커다란 행어를 빨래방 중앙으로 끌어오더니 동현더러 이불을 그 위에 걸치라고 말했다. 왜요? 동현이 묻자 테이블에 놓여 있던 자신의 생수병을 들고 온 정연이 씩 웃었다.

“이제 두드려야죠.”

정연이 생수병으로 이불을 가볍게 두드려 보였다. 세탁되는 동안 잔뜩 뭉쳐 있던 깃털들이 가벼운 타격음과 함께 고르게 퍼졌다. 생수병을 건네받은 동현이 구석구석 뭉친 부분을 찾아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불이 펄럭, 움직일 때마다 채 식지 않은 열기가 공기 중에 퍼졌다.

“이게 참 사람 마음이란 똑같아요.” 정연이 말했다.

“뭉치고 비뚤어진 마음은 차근차근 오래 다독여줘야 풀어지지 않아요. 단단하게 엉켜 있는 것처럼 보여도 풀어놓고 보면 깃털 솜털에 불과한 것ですよ. 그런데 이거, 관리 잘하셨네요. 아끼는 이불인가 봐요.”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끼는 것. 듣고 보니 그랬다. 짙은 회색의 구스 이불은 단지 비싸고 좋은 것이 아닌 따

뜻하고 소중한 것이었다. 그것은 홀로 남겨진 밤을 부드럽게 감싸준 말 없는 위로이기도 했고, 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남모를 응원이기도 했다.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자신만의 가치와 의미가 생겨나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

“정연 씨가 말했던 그 산책로 있잖아요, 동네 전체로 이어진단. 거길 언제 같이 달려도 될까요?”

동현이 물었다. 정연은 어느 틈엔가 동현 옆에 나란히 서 있었다. 동현이 깃털을 펴는 동안 이불이 걸린 행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내내 받쳐준 모양이었다. 정연의 미소와 함께 포슬포슬한 온기가 사방으로 퍼졌다. 작은 틈을 비집고 나온 깃털 하나가 위로, 위로 솟구치고 있었다. (*)

안보윤 | 1981년 인천 출신. 2005년 장편소설 <악어떼가 나왔다>로 문학동네작가상을 받으며 등단. 자음과모음문학상 수상. 소설집 <비교적 안녕한 당신의 하루> <소년7의 고백>, 장편소설 <오즈의 닥터> <사소한 문제들> <우선멈춤> <모르는 척> <밤의 행방>, 중편소설 <알마의 숲>이 있다.



IMAGE NEWS

인천시민이 그리는 ‘인천 내항’의 미래

01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인천시 핵심 사업 인천시민들 ‘공감’
(1,000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 78.8% 긍정 답변)

02

시민이 그리는 인천 내항의 미래



해양관광과 레저·문화 공간 # 공원과 녹지를 포함한 휴식 공간 # 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적 공간
인천항의 발전을 보여주는 역사적 공간

03

시민이 보는 우선 추진 분야



노후 주거지 재생 # 경제 기반 창출
관광 활성화 # 도시 경쟁력 강화

04

시민이 바라보는 참여 방안



시민 참여 위원회, 공론화 위원회 및 토론회
시민의 정책 제안 # 언론·설명회 통한 정보 공유
정책 설문조사

옹진군 바다에 ‘물고기 아파트’ 설치



우리 시는 옹진군 덕적·자월 연안 해역 28ha(축구장 39개 크기)에 인공어초 307개를 설치한다. 인공어초는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으로 만든 인공 구조물을 바닷속에 투하,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물고기 아파트를 말한다. 이 구조물에 해조류가 부착해 번식하고, 어류들이 숨어 살거나 산란장으로 이용한다. 인공어초를 설치한 해역은 설치하지 않은 해역에 비해 꽃게, 조피볼락, 쥐노래미 등의 어획량이 약 2~4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수산과 032-440-4873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450억 원 지원

우리 시는 지난 10월 26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450억 원 규모의 4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접수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후 1년 거치 기간에는 이자 전액을, 이후 2년까지는 연 1.5%를 지원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예약 및 신청할 수 있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14

인천경제청, 가을철 송도국제도시 도로 정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를 정비한다.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 결빙으로 인한 교통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랜드마크로 0.37km, 송도바이오대로 1.1km, 신송로 0.1km, 아트센터대로 0.6km 등 네 곳의 도로를 재포장하며 포트홀 구간이 심한 15개소의 도로 일부도 보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 송도기반과 032-453-7533

버스정류장 103개소에 승차 알림 시스템 설치

우리 시는 버스정류장에 승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승차 알림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버스 정류장 안에 부착된 승차 버튼을 누르면 외부 LED 전광판에 ‘승객 대기 중’ 알림 문구가 표출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대기 중인 것도 알릴 수 있어 편리하다. 이 장치는 별도의 전원 없이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전기 요금 절감은 물론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 버스정책과 032-440-3652

강화군 주문연도교, 2026년 준공 추진

2026년에 강화군 주문도와 아차도를 연결하는 주문연도교가 놓일 전망이다. 우리 시는 주문연도교 건설사업이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올 연말 실시 설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문도와 아차도를 잇는 길이 550m, 2차선 교량을 짓는 것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300억 원(시비 150억 원, 군비 150억 원)이 투입된다. 더불어 2단계인 불음연도교 건설은 국비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시 섬발전지원과 032-440-4994

‘인천 영 아티스트 콘서트’ 협연자 공개 모집

인천시립교향악단이 ‘2023년 인천 영 아티스트 콘서트’ 협연자를 공개 모집한다. 올해의 경연 부문은 피아노, 마림바, 성악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중 공고일 이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이거나 현재 인천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문화예술회관 032-420-2736

생활 안전 공공 애플리케이션 ‘안심in’

귀갓길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시의 생활 안전 공공 애플리케이션 ‘안심in’이 다시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기능인 ‘안심귀가’는 도착지를 설정하고 귀갓길 서비스를 시작하면 사전에 등록해 둔 가족, 친구에게 실시간으로 내 위치를 보여준다. 또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도움요청’ 버튼을 누르면 인천의 10개 군구에서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돼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 재난상황과 032-440-5784



인천시청에 안전한 수소연료전지 설비 설치



인천시청 기계실에 수소연료전지 설비 10kW(5kW급 2기)가 설치됐다.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수소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고효율·친환경적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황화합물, 질소화합물 등이 배출되지 않아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다. 우리 시는 수소 마을 기업 구축, 생활 속 연료전지 보급, 수소 안심 세미나 등 다양한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에너지정책과 032-440-4352

횡단보도 등 83개소에 금연 안내 표지판 설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시 조례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횡단보도 53개소, 하천 구역 보행로 및 산책로 30개소 등 총 83개소에 금연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다. 이 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우리 시는 간접흡연 피해로 민원이 빈번한 굴포천, 아라천 등 관내 18개소에서 관리·점검과 금연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다.
시 건강증진과 032-440-2723

백령도 점박이물범 관찰 전망대 조성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 등을 갖춘 생태관광체험센터가 백령도에 들어선다. 지난해 5월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된 백령도 하늬해변(점박이물범 집단서식지)과 진촌리 마을 일원에 2024년까지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점박이물범 관찰 전망대를 비롯해 생태공원, 생태 탐방로 등을 조성한다. 하늬해변 일대는 매년 봄부터 늦가을까지 200~300여 마리 점박이물범을 관찰할 수 있다.
시 해양환경과 032-440-7882

출근 시간에 M6410 노선 전세 버스 3대 투입

우리 시는 온라인 열린시장실을 통해 접수된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출근 시간대에 M6410 노선에 전세 버스 3대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 의견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석 금지를 강화하면서 논현동 M6410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고, 월곳 경유 등에 따라 서울로의 출퇴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M6410 버스의 노선 변경 및 논현-강남행 신규 노선을 신설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 시민소통담당관 032-440-2418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우리 시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24대를 신규 구입했다. 이번 증차로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휠체어 특장차는 총 193대로 늘어나게 됐다. 또 바우처 택시 300대도 운영하고 있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콜택시 요금만 지불하면서 일반 택시를 이용하고 우리 시가 그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 시는 매년 특장차를 추가해 2025년까지 254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 택시정책과 032-440-3802

GS25시니어드림스토어 3호점 개점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운영하는 ‘GS25시니어드림스토어’ 3호점인 ‘GS용마루은서점’이 문을 열었다. 편의점은 단순 반복적인 공익 활동 일자리사업과 달리 물품 판매, 매출 및 재고 관리, 매장 운영 등 다양한 능력과 활동을 요구해 노년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3호점은 그간 운영이 어려웠던 야간 시간대에 청년을 채용하면서 24시간제로 운영을 확대했다.
시 노인정책과 032-440-2837

장애인 자립 위해 임대주택 20호 공급

우리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이 함께 장애인 지원 주택사업을 추진한다. 중구 신흥동에 소재한 독립 생활용 임대주택 20호(54~74㎡)를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공급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해 장애인들의 자립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2021년 1차로 임대주택 8호를 공급했으며, 이번에 2차로 20호를 추가했다. 특히 이번에는 비장애인과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추가됐다.
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2

all ways INCHEON

이제부터 전화 한 통으로 쉽고 간편하게 인천시 홈페이지 접속!

인천시 홈페이지 연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다이얼링크 서비스 참고사항

01 KT / LGU+ 통신사의 경우(안드로이드) : **후후앱** / IOS(아이폰) 휴대폰 일 경우 : **다이얼링크아이앱**
설치 또는 업데이트 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SK통신사는 앱 설치없이 이용 가능)

02 일부 3G 기반의 구형 단말기의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용문의 | SK텔레콤 법인과객센터(1599-6011) * 서비스 이용기간 | 2022. 9. 1. - 12. 31.

COUNCIL NEWS

전국 최초 완성형 비전 선포



인천광역시의회가 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전국 최초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비전 하우스를 완성한 기념으로 'VISION 2026! 인천광역시의회 비전 선포식'을 지난 10월 12일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대한민국 지방 의정의 선도 모델,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 2026'이라는 인천광역시의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미래 비전을 도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내년 8월까지 전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부터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호찌민시 인민의회 대표단 인천시의회 방문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 및 인천광역시의회와 호찌민시 인민의회 자매우호협력도시 협정 5주년을 기념해 지난 9월 23일 응우옌 티 레(Nguyen Thi Le) 의장을 비롯해 총 18명의 대표단이 인천시의회를 방문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국제 교류 재개와 함께 양 도시의 협력 방안 및 상호 교류 확대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눴다. 응우옌 티 레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인천의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교통, 행정 혁신 정책 등을 배우고 싶다고 전했다.

의원 연구 단체 17개 등록 승인



인천광역시의회는 내년에 활동할 총 17개 의원 연구 단체에 대한 등록을 최근 승인, 통보했다. 내년에 의원 연구 단체에 참여하는 시의원은 총 34명으로 전체 시의원 40명의 85%를 차지한다. 특히 연구 과제가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아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이 연구,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3건, 문화복지위원회 5건, 산업경제위원회 4건, 건설교통위원회 4건, 교육위원회 1건 등이다.

도시계획·개발 조사 특위, 사업 현장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 관련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0월 6일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인천시에서 소관하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효성 도시개발,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 서구 검단중앙공원, 송도 6·8공구 개발, 송도유원지 용도 변경 등 5개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및 대책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행정의 관리·감독 사항을 조사했다.

특·광역시의회 청사 최초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인천광역시의회 본관·신관 건물이 특·광역시의회 청사 최초로 내진 특등급을 받았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진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21년 4월 '의회 청사 내진 성능 평가 및 보강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진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지난 6월(의회 본관동)과 8월(의회 별관동)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신청했고 전문 심사원이 청사를 방문해 서류 및 검증을 거쳐 인증을 획득했다.

교육위원회, 일일 야구 교실 진행 '호응'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동산고등학교 최승우기념관에서 전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자 MBC 스포츠 해설위원인 박재홍 씨와 함께하는 '일일 야구 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중·고등학교 야구부원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위원회는 "야구 교실뿐 아니라 앞으로 축구·농구 등 인기 종목은 물론 육상·레슬링 등 비인기 종목에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학생 운동선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앓의회〉 구독 안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의 더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앓의회〉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한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앓의회〉에는 의회, 관광, 인천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의회사무처) 032-440-6136

인천광역시의회 SNS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INFO BOX

1

납세자보호관과 마을세무사가
함께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

일시 및 장소: 12월 31일까지 매주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4시
- 11월 16일 강화군(추후 공지)
- 12월 21일 옹진군(추후 공지)
이용 방법: 전화 예약 후 상담 시간 결정 후 방문
혹은 유선으로 상담 진행
내용: 지방세, 국세 등 세무 관련 상담 서비스
문의: ㉠ 강화군 032-930-3401, 옹진군 032-889-2764

「납세자보호관과 마을세무사가 함께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을 마련하여 무료로 지방세 및 국세 등 세무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운영기간 2022년 3월 ~ 12월

운영시간 매월 셋째주 수요일 14:00 ~ 16:00

상 담 실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관련 조세법령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마을세무사)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

운영방법 전월별 확산 행사를 위해 여의 상담제 운영

전화예약 상담시간 지정 홍보 상담실시 (상담할)

시, 군 구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신청자 방문 또는 유선 (신청자 선의)

상 담 일 시	상 담 장 소	상 담 일 시	상 담 장 소
2022.3.16.(수)	중구 영종도 제2청사 세무2과 (중구 운남서로 100)	2022.8.17.(수)	부평구청 무로평읍상당실 (본관 5층)
2022.4.20.(수)	중구청 평생교육관 (본관 지하1층)	2022.9.21.(수)	미추홀구청 상설감사청본관 1층
2022.6.8.(수)	계양구청 세무과 (계양구청 2층)	2022.10.19.(수)	서구청 본관 2층
2022.6.15.(수)	연수구청 도량 커뮤니티 (별관 3층)	2022.11.16.(수)	강화군(추후 공지)
2022.7.20.(수)	남동구청 소용택터담양관실 (남동구청 본관 1층)	2022.12.21.(수)	옹진군(추후 공지)

시, 군 구 납세자보호관 전화예약 문의처

인천광역시 032-440-2205, 중구032-760-7072, 동구032-770-6932, 미추홀구032-880-4013, 연수구032-749-7133, 남동구032-453-2161, 부평구032-509-6096, 계양구032-450-5053, 서구032-500-4063, 강화군032-930-3401, 옹진군032-889-2764

2

IFEZ 거주·활동 외국인 대상 무료 법률 상담

내용: 부동산 임대차, 노동관계, 채권·채무 등에 대해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외국인 상담 전문 변호사 진행
신청 방법: 전화 및 이메일(ifezglobal@gmail.com)
문의: ㉠ 032-453-7356

3

2022 인천 세계 문자 디자인 공모전 개최

기간: 11월 11일까지
대상: 전자지갑 개설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제 및 형식:
디지털 세상의 미래
문자 디자인으로
이미지나 동영상 제작
내용: 선정작은 대체 불가능
토큰(NFT)으로 변환되어
NFT 마켓플레이스에
단독 프로모션으로 발행
문의: ㉠ 032-440-4003
㉡ 공모전 홈페이지(scriptsymposia.org/2022)



4

‘도시학당’에서 배우는 아파트 이야기 수강생 모집

기간: 11월 2~30일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주제: 아파트 나라, 아파트 인생
- 경성의 아파트를 통해 본 근대 주거사
- 아파트 인생 전시를 통해 본 아파트 이야기
- 한국 주거의 공간사
- 안평, 둔촌주공아파트
- 아파트 한국 사회:
단지 공화국에 갇힌
도시와 일상
장소: 인천도시역사관
3층 강당
신청: 인천도시역사관
홈페이지, 유선,
방문, 현장 접수
문의: ㉠ 032-850-6026,
032-850-6000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5

1883개향살롱,
클래식과 만나다

내용: 클래식과 만나는
원데이 클래스
- 11월 2일: 우리가 몰랐던
클래식 음악 속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
- 11월 9일: 한국인이
좋아하는 이탈리아 가곡(1)
- 11월 16일: 한국인이
좋아하는 이탈리아 가곡(2)
- 11월 23일: 한국인이 좋아하는
이탈리아 가곡(3)
- 11월 30일: 음악 발표회 준비
- 12월 7일: 음악 발표회를 통한 클래식 연주자 체험
참여 방법: 네이버 예약, 인스타그램 DM, 현장 방문
및 전화 예약
문의: ㉠ 032-766-9030



6

제31회 인천청소년가요제 접수

참가 접수: 11월 11일까지
(보컬 솔로, 보컬 듀엣, 밴드)
일시
- 예선: 11월 12일 오전 10시
- 본선: 11월 26일 오후 2시
(청소년수련관 본관 공연장)
문의: ㉠ 032-456-2433
㉡ 인천시시설공단 홈페이지
(www.insiseol.or.kr)



7

‘물길 따라 동구길’ 함께 걷기
참가자 모집

일시: 11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토요일
문의: ㉠ 032-777-8957 ㉡ www.hdjcc.or.kr



8

제1회 인천 평생학습 시민축제 개최

‘꿈 너머 넘어 꿈, 모든 길은 평생학습으로 열린다!’
일시: 11월 4~5일
장소: 인천아트플랫폼
내용: 평생학습 기관·단체 및 학습동아리 등의 성과와 즐거움 공유
문의: ㉠ 032-440-2173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INFO BOX

9

‘청소년웹진 MOO’ 청소년 기자 모집



기간: 11월 8일까지
대상: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
내용: 취재 경험, 자원봉사 실적 인정, 시장 표창 등 혜택 다양
신청: 청소년웹진 MOO ㉡ 홈페이지(moo.incheon.go.kr)
문의: ㉠ 032-440-2923

10

제1회 대한민국 시민 연극제

기간: 11월 8~18일
내용: 인천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전국 규모의 시민 연극제
- 개막식: 부평아트센터 야외마당 오전 11시~오후 3시
- 부대 행사: 부평아트센터 야외마당 오전 11시~오후 3시
- 본공연: 문학시어터 오후 7시
- 프린지 공연: 한중문화관·부평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오후 3시·4시
- 초청 공연: 계양문화회관 오후 7시
문의: ㉠ 010-2019-5236



11

인천시교육청 평생학습관
대중예술고 학생 공연

일시: 11월 10일 오후 7시
내용: 대중예술고의 수려한 대중예술 작품의 향연
참여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ilec.go.kr)
문의: ㉠ 032-899-1517

12

송도컨벤시아 11월 전시회

2022 K-뷰티 & 코스메틱쇼
일시: 11월 3~5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송도컨벤시아 3홀·4홀
비용: 5,000원(사전 등록 시 무료)
문의: ㉠ 02-6000-6716·6695
㉡ www.k-beautycon.com

2022 인천 SW 미래채움 교육 페스티벌

일시: 11월 4~5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송도컨벤시아 1홀·2홀
비용: 무료
문의: ㉠ 032-260-0922

KOREA MICE EXPO(KME)

일시: 11월 9~10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송도컨벤시아 1홀·2홀
비용: 무료
문의: ㉠ 02-6918-2568 ㉡ www.koreamiceexpo.com

인천아시아아트쇼 2022

일시: 11월 11~20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송도컨벤시아 2홀·3홀·4홀
비용: 1만 원, 청소년 8,000원, 수험생·국가유공자 등 5,000원
문의: ㉠ 032-710-7406 ㉡ www.asia-artshow.com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13

인천 도서관 11월 행사

미추홀도서관_폴레랑스 특강 ‘스웨덴 영화 들여다보기’

내용: 영화를 통해 스웨덴의 사회와 삶 알아보기
일시: 11월 10일·17일·24일 오전 10시~낮 12시
문의: ㉠ 032-440-6668

미추홀도서관_중장년 인생 수업 특강

내용: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밥상과 근육 저축 방법
일시: 11월 14일·16일 오후 2~4시
문의: ㉠ 032-440-6668

미추홀도서관_인문학 특강 ‘철학을 삼킨 예술’

내용: 예술의 본질과 변화하는 철학사상 탐구
일시: 11월 8일·15일·22일·29일 오후 2~4시
문의: ㉠ 032-440-6666

미추홀도서관_도서관에서 만나는 보드게임

내용: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진행하는 보드게임 체험
일시: 11월 12~13일 오전 10시~낮 12시
문의: ㉠ 032-440-6667

검암도서관_주민 참여 재능 기부 ‘손글공예’

내용: 손글씨 기반 원데이 클래스 공예 체험
(초등학교 1~3학년생 대상)
일시: 11월 6일 오후 4~5시
문의: ㉠ 032-565-1610

석남도서관_시니어, 내일이 더 궁금한 삶

내용: 시니어 지역주민 대상(50대 이상) 강연
일시: 11월 22~25일
문의: ㉠ 032-575-2600

신석도서관_리딩코딩

내용: 독서 기반 스크래치 코딩 프로그래밍 수업
(초등학교 1~3학년생 대상)
일시: 11월 30일 오후 6~8시
문의: ㉠ 032-571-9457

청라호수도서관_청라달튼외국인학교 영어 튜터링

내용: 청라달튼외국인학교 학생들의 재능 기부 수업
일시: 12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11시 30분
문의: ㉠ 032-563-8044

청라호수도서관_부모교육 특강 ‘행복한 그림책 육아’

내용: 연령별 책 육아 방법과 그림책 놀이 방법
일시: 11월 9일·12일 오전 10시~낮 12시
문의: ㉠ 032-563-8044

청라호수도서관_부모교육 특강 ‘즐거운 놀이 육아’

내용: 놀이의 중요성과 부모의 역할, 아이 주도 놀이 방법
일시: 11월 15일 오전 10시~낮 12시
문의: ㉠ 032-563-8044

청라국제도서관_그림동화 영어 스토리텔링

내용: 청라달튼외국인학교 학생들의 재능 기부 수업
일시: 11월 12일·26일 오전 10~11시
문의: ㉠ 032-562-1675

영종하늘도서관_술술 잘 읽히는 에세이 쓰기

내용: 독자의 마음에 와닿는 에세이 쓰기
일시: 11월 12일·19일·26일 오후 2~4시
문의: ㉠ 032-746-9037

마전도서관_업사이클링 체험 행사

내용: 폐배너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일시: 11월 2일 오후 2~4시
문의: ㉠ 032-590-2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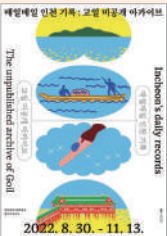
마전도서관_숨은 글자를 찾아라

내용: ‘하’, ‘전’, ‘도’, ‘서’, ‘관’이 들어간 도서 대출 시 기념품 제공
일시: 11월 21~30일
문의: ㉠ 032-590-2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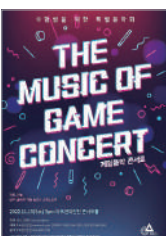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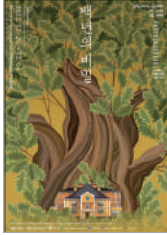





11 Culture Calendar

이달의 전시

<p>책자로 보는 추억, 기록의 소환 인천에 온 갤러리현대 도록(圖錄) 전시회 헌책방 집현전 11월 6일까지 ☎ 070-4142-0897</p> <p>힐링이 되는 사진여행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누 11월 2일~10일 ☎ 032-899-1516</p> <p>엄마와 딸의 3번째 발자국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11월 16일~24일 ☎ 032-899-1516</p>	<p>매일매일 인천 기록 : 고일 미공개 아카이브 인천시립박물관 1층 갤러리 한나루 11월 13일까지 ☎ 032-440-6732</p> <p>APY 입주작가 기획전 [Remapping Remapping Remapping: Time, Space, Memory] 아트플러그 연수 11월 27일까지 ☎ 070-4466-1665</p> <p>상상친구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11월 30일까지 ☎ 032-460-0560</p>	<p>발굴로 깨어나는 3천 년 전 신도시 -검단신도시발굴이야기 검단선사박물관 2층 특별전시실 12월 31일까지 ☎ 032-440-6797</p> <p>공공예술 프로젝트 '유어 플랫폼, 유어 파크' 인천아트플랫폼 야외전시실 12월 31일까지 ☎ 032-760-1000</p> <p>푸른 별 지구에서 함께 살아요! 인천도시역사관 2층 아암홀, 소암홀 2023년 1월 29일까지 ☎ 032-850-6031</p>	    
---	---	--	---

이달의 공연

<p>02 수</p> <p>어린이 뮤지컬 ‘무지개 물고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1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517-3115</p> <p>환경 뮤지컬 ‘쓰레기별 오즈’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1월 2일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40-3538</p> <p>안화영 피아노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11월 2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p>	  	<p>해광브라이트 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기념 연주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11월 2일 오후 3시 무료 ☎ 032-522-8345</p> <p>04 금</p> <p>인천시립교향악단 챔버 뮤직 시리즈 II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1월 4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1만 원 ☎ 1588-2341</p> <p>05 토</p> <p>파비오 비온디 & 에우로파 갈란테 ‘사계’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11월 5일 오후 5시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6만 원, B석 3만 원 ☎ 032-453-7700</p>	  	<p>권나경 플루트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11월 5일 오후 4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p> <p>06 일</p> <p>2022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내한 공연 -지브리, 재즈를 만나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1월 6일 오후 5시 VIP석 7만 7,000원, R석 6만 6,000원, S석 5만 5,000원 ☎ 02-337-3103</p> <p>심포니 오브 메이플스토리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11월 6일 오후 5시 R석 9만 원, S석 7만 원, A석 5만 원 ☎ 02-2658-3546</p>	  	<p>이달의 공연</p> <p>로비 콘서트 ‘마림바’ 엘림아트센터 로비 11월 6일 오후 2~3시 전 석 1만 원 ☎ 032-289-4275</p> <p>11 금</p> <p>인천시립무용단 정기공연 ‘비가(悲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1월 11일 오후 8시, 11월 12일 오후 5시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 1588-2341</p> <p>뮤직 드라마 ‘올 더 웨이’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1월 11일 오후 7시 30분, 11월 12일 오후 5시 전 석 2만 원 ☎ 1588-2341</p> <p>브로콜리너마저의 10분의 11 연수아트홀 11월 11일 오후 7시 30분 ☎ 070-4169-6464</p> <p>16 수</p> <p>커피콘서트IX 퓨전 국악 콘서트 ‘경로이탈’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1월 16일 오후 2시 전 석 1만 5,000원 ☎ 1588-2341</p> <p>인천시립교향악단 제407회 정기연주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11월 16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420-2000</p>	    	<p>17 목</p> <p>지해를 배우는 시간 ‘대담한 대담: 시선의 확장’ V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11월 17일 오후 3시 전 석 2만 원 ☎ 032-453-7700</p> <p>18 금</p> <p>김태균 SHOW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R석 3만 원, S석 2만 원 ☎ 032-460-0560</p> <p>19 토</p> <p>수험생을 위한 특별음악회 ‘게임음악 콘서트’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11월 19일 오후 3시 전 석 2만 원 ☎ 032-453-7700</p> <p>2022 밴드데이 ‘보통의 나날’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1월 19일 오후 6시 전 석 3만 원 ☎ 1588-2341</p> <p>20 일</p> <p>2022 이승환 콘서트 ‘우리 그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1월 20일 오후 5시 R석 14만 3,000원, S석 12만 1,000원 ☎ 1566-6551</p> <p>로비 콘서트 ‘클라리넷 & 피아노’ 엘림아트센터 로비 11월 20일 오후 2~3시 전 석 1만 원 ☎ 032-289-4275</p> <p>25 금</p> <p>콘서트 오페라 ‘토스카’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11월 25일 오후 7시 30분, 11월 26일 오후 5시 R석 5만 원, S석 4만 원, A석 2만 원 ☎ 032-453-7700</p>	    	<p>26 토</p> <p>장사익 소리판 ‘사람이 사람을 만나’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1월 26일 오후 6시 R석 13만 원, S석 11만 원, A석 9만 원, B석 7만 원, C석 5만 원 ☎ 1566-6551</p> <p>최규미 오르간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11월 26일 오후 4시 30분 전 석 3만 원 ☎ 032-289-4275</p> <p>인천시립극단 정기공연 ‘백년의 비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1월 26일~12월 4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 (월요일 공연 없음) 전 석 2만 원 ☎ 1588-2341</p> <p>27 일</p> <p>백건 바이올린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11월 27일 오후 4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p> <p>30 수</p> <p>마티네 콘서트 ‘김정원의 낭만가도: 인연 IV’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11월 30일 오전 11시 전 석 2만 5,000원 ☎ 032-453-7700</p> <p>마티네콘서트 마실 - 세 아가씨가 들려주는 유쾌한 경성음악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11월 30일 오전 11시 ☎ 032-460-0560</p>	     
--	---	--	---	--	---	--	--	---	---	--	--

인천의 자연, 시민의 색으로 물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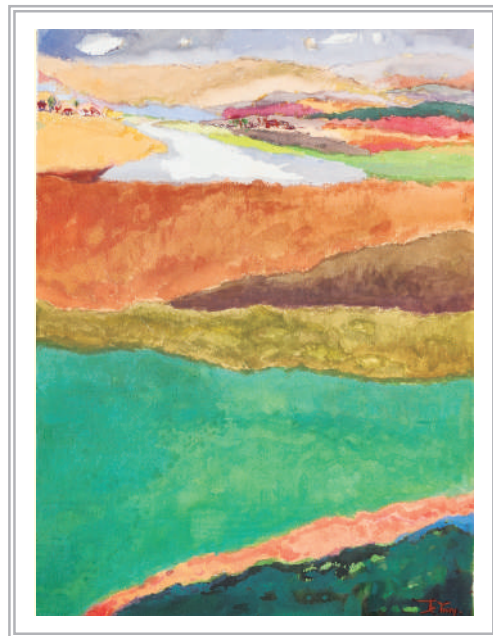
인천은 168개 섬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습니다.
삶에 심포를 찍는 여유와 다채로운 매력이 살아 숨 쉬는 인천의 자연.
인천 작가의 스케치에 시민 여러분의 색과 빛을 입혀주세요.

이달의 드로잉 소래

오제영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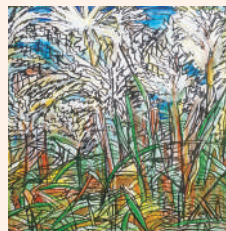
20여 년 넘게 200여 회의 초대전과 단체전에 참여하며 열심히 작품 활동하고 있다. 여행을 다니며 아름다운 풍경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그림을 시작했다. 어릴 적부터 벗 삼고 자란 자연의 빛깔을 화폭에 담고자 노력한다. 인천국제아트페어, 인천미술공모대전, 인천미술실기대회, 계양미술대전 등의 운영위원이자 한국미술협회, 인천미술협회, 대한민국수채화작가협회, 인천수채화작가협회 회원으로 미술계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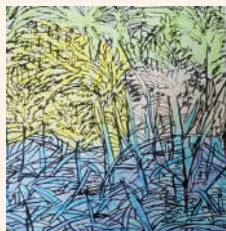
오제영 작가의 채색 가이드

소래에 가면 넓은 갯벌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함초, 칠면초, 갈대, 이름 모를 풀들이 서로 다른 모양과 빛깔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한다. 그 가운데서 잠시 우리네 모습도 엿보게 된다. 가을 빛으로 물드는 갯골을 바라보며 동심으로 돌아가 물감을 짜고 캔버스를 놀이터 삼아 붓질을 한다. 갯골의 밀물이 썰물이 되어가고, 바다로 미쳐 나가지 못한 썰물이 하얗게 반짝인다. 굵이 굵이 멀리서 시시각각 자연의 색을 내뿜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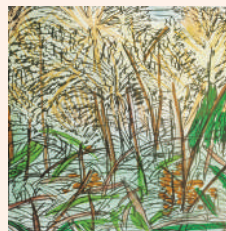
▷ 2022년 10월의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노금화 동구 송현로



라수명 서구 봉오재로



윤성진 남동구 선수촌로



이영욱 남동구 도림로



홍정아 연수구 랜드마크로

▷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시민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

① 우편: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미당 담당자 앞

② 이메일: goodmoringic2022@naver.com

기간: 2022년 11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인천시민의 시선

 박태규 연수구 한진로



♥️ 💬 📍

인천에는 시민을 위한 캠핑장이 각 구마다 있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참 좋습니다. 송도LNG캠핑장에서 찔각.

#캠핑맛집인천 #가족캠핑 #송도LNG캠핑장

 백현주 서구 청라라임로



♥️ 💬 📍

아이들과 단풍 물든 청라국제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친 공원이었는데 가을이 왔다고 알려주네요. 오늘도 소소한 행복 찾기로 한층 더 즐거워졌습니다.

#청라국제도서관 #작은공원 #벌써늦가을


 이종선 부평구 길주남로



♥️ 💬 📍

고적한 백련사에 갔습니다. 커다란 은행나무를 보며 첫째 딸이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길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우리딸, 정말 애썼어. 다 잘될 거야!

#백련사은행나무 #합격기원 #힘내라

 류희선 동구 송현로



♥️ 💬 📍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산책하는 부모님의 뒷모습입니다. 어머니는 휠체어를 민다기보다는 매달려 있는 모습인데요, 오랫동안 건강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뒷모습 #언제나건강 #간절한소망

당신의 시선이나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① 일상의 인상적인 순간을 포착해 사진으로 찍는다.

② 짧은 메시지와 함께 이메일로 보낸다.

보내실 곳: goodmorningic2022@naver.com

기간: 2022년 11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 지면에 사진이 실린 시민께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시간의 성숙함

2022년도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나뭇가지에 쌓인 흰 눈을 보며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시간은 왜 이리 빨리 흐르는지...

시간이 흐르는 게 아까운 시절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시간이 흐르는 만큼 성숙해진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인천시민들께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무르익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게다가 2022년이 아직 두 달이나 남아 있으니 말이지요.

긍정적인 태도는 긍정적인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달도 좋은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틀림없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 公明 김진국 -

마음의 계절은 언제인가요

봄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동검도 바닷가 작은 예배당을 처음 찾은 때가. 예배당은 봉헌식을 앞두고 세상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사람, 외로운 사람, 쉼이 필요한 사람, 그 누구라도요. 삶이 늘 행복하고 기쁜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불행과 슬픔을 만날 때도 있지요. 그 때 전 추운 겨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긴 겨울을 버텨온 사람에게 온다"라고. 그렇게 힘내어, 봄을 맞았습니다. 오늘 강원 북부 산지에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시월에 대설특보가 내린 건 2005년 이후 17년 만이라고 합니다. 벌써 겨울의 길목에 선 건가요. 지금, 당신 마음의 계절은 언제인가요? 언제나 봄일 순 없어도,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봄은 옵니다.

- 언제나 봄, 정경숙 -

가을은 음악과 함께

'투-둑, 지지-직' 턴테이블이 돌아가자 등실 날아오른 음표가 바닥을 가로질러 다가와 보드라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하여 10월의 어느 가을밤, 가슴으로 파고든 선율이 작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책장에서 아끼는 LP를 꺼내 걸고 조심스럽게 비늘을 올리던 순간의 '기분 좋은 기다림'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음악을 듣기 위해 꽤 공을 들였습니다. 시내에 있는 레코드 가게에 가서 음반을 만져보고 골라 집으로 들고 와야 했습니다. 조금 번거로웠지만 설레고 소중했습니다. 실폐동 LP 바에는 여전히 음악을 만지고, 오롯이 소유하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음악은 2D가 아닌 3D'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올가을엔 실폐동에 가보세요. 음악이 작은 파동을 일으킬 거예요.

- 가을밤 실폐동에서, 최은정 -



인천 행정구역 개편史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인천도 아닌데 부천의 지역번호가 왜 ‘032’인가 궁금했다. 인천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전화국에서 편의에 따라 정한 것일까. 부평富平의 ‘富’ 자와 인천仁川의 ‘川’ 자를 합해 ‘부천富川’이란 도시명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고개가 끄덕여졌다.

인천과 부평은 본래 각각의 진산 아래 도호부를 둔 다른 지역이었다. 문학산 아래 인천도호부가, 계양산 아래 부평도호부가 있는 까닭이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택시를 타고 간 석오거리를 넘으면 2000원의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했던 지역이 난다. 지리·정서적으로 인천과 부평은 얼마간 차이가 있었던 셈이다.

인천과 부평이 처음 합쳐진 시기는 1914년이다. 1910년 조선을 강제 병합한 일제는 이 시기 인천 부역附域을 크게 축소한다. 일본인 거주지에만 도시 시설을 집중 투자해 일본인 중심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이때 인천 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부평 지역과 합쳐져 신도시 격인 ‘부천군’에 편입된다. 식민 경영을 강화하고 대륙 침략 정책을 노골화하면서 일제는 다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 1936년 부천군에 편입시켰던 문학면의 학익·옥련·관교리와 다주면의 도화·용정(용현동)·사충(주안동)·장의(송의동)·간석리를 인천부로 환원시킨 것이다. 세원 확보를 위해서였다.

이듬해 중일전쟁(1937) 발발을 계기로 경인시가지계획(1940)이 세워지며 부천군의 서곶·문학·남동·부내면(부평)이 인천부에 추가로 편입된다. 공장과 거주지, 식량 공급 기지 권역으로 묶는다는 계획이었다. 그렇게 인천은 1910년 인천도호부의 부역에 더하여 부평까지 차지하며 비약적으로 커진다.



영종대교 ©서터스톡

1960~197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인천의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1981년 인구 100만의 직할시가 됐고, 1995년엔 광역시로 승격하며 강화와 김포 검단, 옹진군을 끌어안는다.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 국토개발계획의 결과였다. 여러 기능의 입지 공간을 확보한 인천은 비로소 ‘세계 초일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인천시가 지금 추진하는 행정 체제 개편은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조정하고, ‘검단구’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1995년 이후 행정·사회적 여건이 크게 변했음에도 2군 8구 체제가 그대로여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구는 영종도와 생활권이 분리돼 있어 영종도에 제2청사를 여는 등 행정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영종도는 외국인을 포함해 인구 10만 명을 넘기며 분구 얘기가 계속 나왔었다. 서구의 경우 인천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면적도 동구·미추홀구·계양구·부평구를 합친 것보다도 크다. 여기에 검단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크게 늘면서 분구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온 게 사실이다.

인천의 행정 체제가 시대 변화 여건에 따라 ‘2군 9구 체제’로 조정되면 인구와 생활권에 걸맞은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은 한결 좋아질 것이다.



서구 연희동 전경



산사山寺의 가을

산사의 찻집에
그윽한 가을이 흐릅니다.

연둣빛을 띤 맑은 찻잔에도

마주 보며 차를 마시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가을이 은은하게 흘러갑니다.

이 계절, 산사의 찻집엔
사랑과 행복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